

## 콘텐츠

김다희	2
김수빈	6
김지민	8
김지연	14
박서윤	17
변지원	19
송현호	21
심예지	22
양서진	25
이지민	27
이지우	31
장수영	34
장예진	37
정현수	40
최연서	45
최지은	48
홍가은	50
홍성환	54
황보민정	57
황혜빈	58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다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학번/가족복지학과
파견시기	2024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장학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월 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안녕하세요! 2024 가을학기 장학 교환학생으로 UCM에 다녀온 김다희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준비할 때 이런 보고서를 읽으면서 준비했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엄청 시골입니다!** 타겟이나 트레이더 조, 한인마트는 없고, 그나마 있는 월마트는 걸어서 편도로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시골입니다. 캔자스 시티 공항에서 차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라, 국내선 타고 미국 여행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친구들 4명이 모여 우버를 타면 공항까지 편도 80~100달러 정도로 그나마 저렴하게 갈 수 있긴 해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다운타운**이 있긴 한데, 카페는 한 곳 빼고는 거의 아침 6시에 열어서 오후 2시 전에 닫는 아주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한식당도 있긴 한데, 걸어서 편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베트남 쌀국수 집은 그나마 가까워서 편도로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걸 좋아하시고 변화가에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은 UCM 비추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시골에 처음 살아봐서 너무 평화롭고 좋았어요.** 다만 2학기 동안 있으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내 생활:** 월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셔틀이 있어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생필품을 구매했어요. 월마트에는 불닭, 신라면, 너구리, 햇반 등 한국 음식들도 있지만, 다른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아마존으로 배달 시켜 먹었어요. **학교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면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몇 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일본 대학에서 단체로 교환학생이 와서 일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며 일본어도 배우고 잘 지냈어요. 봄학기에도 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학교 내에서 풋볼 경기, 배구 경기, 농구 경기를 자주 하는데, 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풋볼은 재미가 없어서 배구 경기를 자주 봤어요. 미국은 개인 공간과 개인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들이 무슨 옷을 입든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보고 1학기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편했습니다.** 다만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상대도 배려를 해줘야 해요. 줄 설 때는 한국처럼 앞사람과 뒷사람이 딱 붙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꼭 "Excuse me"라는 말을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저는 **12학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2학점은 한국에서 들었던 학점보다 훨씬 적은 학점이지만,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이 정도가 딱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보다 과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업마다 온라인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고, 시험을 3번 보는 과목도 있으며, 아예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로만 점수를 주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출석을 아예 체크하지 않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수업 방식이 다양하니,** 처음에 수업을 고르실 때 꼭 **syllabus**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00번대**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려운 수업입니다. 어차피 상명대로 성적이 넘어올 때는 **P/F**로 넘어오기 때문에 **너무 공부에만 시간을 쏟지 마시고, 학교 생활도 즐기시고 여러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F만 피하시면 됩니다. 출석, 과제만 열심히 해도 F는 안 나와요.

**학교 내 결제:** 처음에 학교를 가면 US Bank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밖에서는 트레블 월렛으로 사용하고, 학교 안에서는 핸드폰 탭으로 결제할 수 있는 **다이닝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다이닝 달러의 좋은 점은 학교 내에서 결제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100달러 충전하면 20달러를 공짜로 더 주는 행사도 하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학비는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학교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My Central → Payment에서 카드 결제했어요.

**학교 내 시설:** 학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캠퍼스입니다. 수업 듣는 건물들도 다 깔끔했고, 도서관도 넓고 스터디룸도 많아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학교 안에 **렉센터**라는 운동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설이 있어서 배드민턴, 배구, 농구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켓이나 공은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또 롤러스케이트 행사와 양궁 행사도 자주 합니다. 주중 저녁 식사 이후나 주말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렉센터에 가서 많이 운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 친구들과도 운동 많이 했지만, 일본 친구들과도 함께 운동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유니온**이라는 대학 본관 같은 느낌의 학교 건물에는 볼링장도 있어서 볼링도 칠 수 있습니다. 다

만 돈을 내야 하는데,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료 볼링 행사를 하므로 딱 한 번 빼고는 볼링을 돈 내고 친 적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료 행사도 많이 하니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니온 지하에는 칩필레, 타코벨, 스시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 다이닝 홀에서 식사하면 질려서, 저는 여기서 평일 점심을 많이 사먹었습니다. 다이닝 달리를 이용하면 세금도 안 붙고 좋았습니다.

**식사:** 식사는 크로싱 같은 아파트먼트를 사실 예정이라면, 밀플랜은 굳이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최소로 신청하세요.** 레지던스 홀에 사실 분이더라도 최소로 신청해보시고, 나중에 추가하실 수 있으니 부족하시면 그때 충전하세요. 저는 몇 번 먹으면 질려서 먹기가 싫었어요. 웬만하면 **식사는 엘리스 다이닝 홀보다는 토드 다이닝 홀이 나아요.** 아파트먼트를 사실 분이라면 주방이 방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기숙사:** 저는 기숙사를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크로싱(아파트먼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엘리스라는 아주 낡은 레지던스 홀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스는 학교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숙사이니, 여기만 피하세요.** 아파트먼트(크로싱)에 못 가신 분들은 피츠, 토드 등 다른 곳으로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스는 비추천입니다. 어차피 다 비싸니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꼭 아파트먼트를 신청해보세요.** 저는 엘리스에 살면서 싱글룸을 사용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 예민하신 분들은 싱글룸을 고려해보세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는 룸메와 성격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먼트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레지던스 홀은 전부 4명 이서 화장실 하나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싱글룸이면 2인이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본인은 싱글룸인데 옆방이 2명이서 쓰는 더블룸이면 화장실은 3명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방 두 개에 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홀이나 아파트먼트에는 통금이 없고, 방 검사도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자, 여자 기숙사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앞 방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고 방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많이 놀아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싱글룸을 신청하시고, 기숙사 선호도를 체크할 때 조용한 사람과 방을 쓰고 싶다고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먼트:** 자취방과 비슷하며, 주방이 방 안에 있음. 조금 더 비쌌. (예: 크로싱)
- **레지던스 홀:** 2인 1실 또는 1인 1실이며, 공용 주방을 사용해야 함. 조금 더 저렴함. (예: 엘리스, 피츠, 토드 등)

**여행:** 개강일과 종강일 1달 전후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기 전후로 여행을 갈 수 있지만, 학기 중에도 **노동자의 날, 가을 방학, 땡스기빙** 등 쉬는 날이 많아서 이때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저는 캔자스 시티, 세인트 루이스, 뉴욕,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는데, 지금 와

서 드는 생각은 한국에서 직항이 없는 곳을 가볼 걸 하는 아쉬움입니다. 워낙 유명한 여행지는 한국에서도 직항으로 갈 수 있으니, 미국에 있을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를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캔자스 시티는 ISO 국제 동아리에 들어가면 당일치기 여행을 하게 해주니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세인트 루이스는 암트랙을 타고 4시간 30분 이상 가야 해서 그 정도의 여행지는 아니라 비추천합니다.

**주의사항:**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학교 내에 **yellow fever**도 있고, UCM에서 한 번도 겪지는 않았지만 유명 관광지에서는 인종 차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너무 친절하게 한국어로 다가와도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 차별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이니, 싸웠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깐요. 학교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의 40프로 정도만 나오니 꼭 **개인 보험 들고 가세요!** 제 친구가 응급실 한번 갔다가 80만원 나왔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는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영어를 전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영어로 말해야 할 때는 긴장이 됐지만, 과거에 왜 걱정을 했었는지 싶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건물도 찾지 못할 수 있지만, 몇 주만 생활하다 보면 금방 적응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미국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한다는 게 힘들 수 있지만, 무언가 물어본다면 UCM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지금 제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직접 생활하시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걱정했구나" 하실 겁니다. 뭐든지 직접 해보고 경험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이런 시골에서 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평일에는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수다 떨고 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잘 맞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UCM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교환학생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kdh2190@naver.com](mailto:kdh2190@naver.com) 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수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 글로벌지역학부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2월 2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저는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라는 학교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Missouri주 Warrensburg라는 시골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라는 점이 걱정되었지만, 생각보다 다운타운이 잘 되어있고 주변에 식당도 꽤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다양한 행사가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이 학교의 장점은 조용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친화적이고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졌으며, 학교 내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국제학생들이 많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제학생 동아리인 ISO의 도움으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불편한 교통입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 차가 없으면 이동이 쉽지 않았고, Uber도 자주 잡히지 않았습니다. Kansas City로 가는 Amtrak이 있지만 운행 횟수가 적어 차량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월마트도 걸어가면 왕복 1시간은 소요되고 인도가 잘 되어있는 편은 아니라 화요일에 운행되는 월마트 버스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조금 더 가기 수월한 Hybee라는 식료품점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업은 Model UN 수업을 추천합니다. 이 수업은 한학기동안 나라를 선택한 후 UN 회의를 모의로 진행하는 수업인데, 발표나 토론이 많아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성적도 그냥 주어진 과제나 수업시간에 잘 참여하면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주십니다. 어드바이저 학생들도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여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뒤로 갈수록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시카고에서 열리는 실제 회의에 3~4일 동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줍니다. 땡스기빙 주간엔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후 추가로 돈을 써서 시카고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발표나 토론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 영어에 너무 자신이 없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최대한 빨리 Crossing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싱은 부엌과 거실이 있는 아파트형 구조인데, 룸메이트와 방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점과 부엌이나 거실이 같이 있다는 점이 매우 편했습니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가 전부 구비되어 있어서 요리해먹기 좋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Housing, Houts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형 기숙사는 아니지만 토드라는 다이닝홀과 가까워 편리하며, 공용부엌도 다른 곳에 비해 깔끔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만족도가 높았던

기숙사입니다. 반면, Alice 기숙사는 시설이 다소 낙후되어 지내는 분들의 만족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맛집으로는 Pho4U(쌀국수, 버블티), Oriental Cuisine(비빔밥 및 한식 있음, 한국인들이 운영), Sabai Thai Cuisine(태국 음식 및 쌀국수), 그리고 Magnolia Market(다운타운에 위치, 아사이볼 및 샌드위치)을 추천합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싶을 때 종종 이곳들 방문하거나 우버잇츠 시켰는데 괜찮았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한인교회에서는 예배 후 한식을 주시는데 전 자주 안 갔지만 픽업도 해주시고 한식도 맛있었습니다. 또 점심식사 후에 자주 월마트까지 태워 주셨습니다.

여행으로는 노동절에 Saint Louis, 가을방학에는 뉴욕, 땡스기빙에는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땡스기빙에는 Model UN 회의 이후 시카고에서 추가 여행을 했고, 종강 후에는 뉴욕과 LA에서 각각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학기 중에 캔자스시티도 몇번 방문했는데 당일치기로 쇼핑하고 카페나 식당 갔다가 오기 좋았습니다. 갈 때는 암트랙을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늦은 시간에 암트랙이 없어 항상 우버를 타고 왔습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와 새해 모두 뉴욕에서 보냈는데 사람이 많고 정신없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Friendship Family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일을 잘 확인했다가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가족분들과 매칭된 후에 한달에 한두번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다양한 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할로윈 때 호박을 조각하거나 식사를 함께했는데 워렌스버그에 있는 다양한 식당이나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다양한 미국 문화도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참여자에 비해 봉사자들이 적어서 늦게 신청하면 참여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하면서 영어도 꽤 늘었다고 생각하고 일본인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교환학생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학기지만 배운 것도 많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참여자 분들도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지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컴퓨터과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2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24학년도 2학기에 정규 교환으로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 다녀 온 컴퓨터과학 전공 22학번 김지민입니다. 우선 ‘내가 교환 학생에 다녀오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며 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면, 저는 고민 말고 교환 학생에 다녀오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건 마지막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궁금하고 답답한 점이 많았던 만큼, 겪었던 여러 경험들 중에서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사항들, 교환학생 학교 선정부터 준비 사항 그리고 미국 생활 및 고충 등에 대해 아래에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 비용

저도 그랬듯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일 것입니다. 제가 UCM을 교환학생 학교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학교 선정 전 상명대에서 제공해준 학교별 비용과 각 학교 사이트를 참고하여 UCM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상보다 비용은 훨씬 많이 드니 넉넉하게(여행까지 1500-2000만원 가량) 준비하는 게 좋고, 사실 어쩌면 UCM도 그리 값이 싼 학교도 아닙니다. 정규 교환학생이든 장학/어학 교환학생이든 상관 없이 UCM에서 수강하는 수업 하나 당 약 8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공학계열(Computer Science) 수업을 수강하여 stem 관련 추가 비용 200 달러 정도씩을 더 지불하여, 4과목의 수업료에만 총 4-500만원 가량을 지불했습니다.

사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UCM으로 파견 온 학생들 거의 모두가 두 학교 측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한 사항이라 미국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직접 등록금 관련 부서에 찾아가 문의를 하는 등 애를 먹었습니다. 여행 비용을 제외한 학비와 기숙사비 등 초반에 내야 했던 비용만 8-900만원이었습니다. 정규교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한 번 더 내는 수준과 같았기에, 같은 값으로 다른 학교를 선택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하고 학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비용이 걱정이라면 영어 공부 겸 아르바이트를 위해 한 학기 정도 휴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꼭 찾아보세요! 특히 전공, 부전공이 이공계열이라면 KIAT(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미 교환학생 장학금 사업에 꼭 지원하시길 추천합니다. 미국 교환학생으로 파견 예정인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꽤나 많은 비용을 교환학생 파견 직전에 받을 수 있어 저는 학비를 여기서 충당했습니다. 생인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라 경쟁률이 낮은 듯하고, 서류와 면접만 신경 쓰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 학비 결제는 ucm에 와서 만든 u.s. bank 계좌로 보통 결제합니다. 트레블월렛 카드에서 충전한 돈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초반부터 왕창 환전해놓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트레블월렛에서 미국 계좌로 송금하기 기능(환율이 조금 더 비싸고 2-3일 정도 소요됩니다)을 통해 u.s. bank 계좌로 돈을 며칠에 걸쳐 보내고, 그 후 이 계좌로 학비를 냈습니다.

## - 학교 선정

학교 선정은 ucm이 아니어도 여건만 괜찮다면 다른 곳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사업 때문에 다른 한국 학교 교환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다른 학교도 방문해봤는데, 학교 규모와 도시인가에 따라서 경험하는 생활/학업의 질 격차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UCM이 시골이라고 영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외국인들과 함께 붙어 지낼 시간이 많다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큰 학교를 선정하시길 추천합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

교환학생 결정이 난 이후 **비자는 5-6월에** 신청하여 발급 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이 꽤나 귀찮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와있고, 인터뷰도 매우 간단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플 응시비와 비자 발급 비용을 합쳐 백만원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빠르게 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UCM(캔자스 시티 공항)에 개강날 7일 전에는 OT를 위해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첫날은 ucm에서 잡아주는 호텔(오후 11시 정도까지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픽업해줍니다)에서 묵고 학교로 이동합니다. 학사 일정을 잘 살펴보고 항공편을 미리 봐주세요. 저는 괜히 외국 항공사에 겁을 먹어 비싸게 한국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미국 국내 여행을 하며 외국 항공사만 이용하게 되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편도로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왕복으로 끊는 게 훨씬 싼 조건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돌아오는 시점은 여행 길이에 따라 12월 끝물이나 1월 초) 여행 후 캔자스시티 공항으로 돌아오는 게 귀찮더라도 저렴한 비용을 중요시하신다면 추천합니다.

3월쯤부터는 ucm에서 메일로 꾸준히 무얼 해야하는지 링크와 함께 알려주시니 늘 메일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숙사는 3-4월쯤부터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고 자리가 없는 Crossing에 거주하려면 아주 빨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나름 빨리 제출한 편이었는데도 결국 순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강신청도 4-5월쯤 구글폼으로 무슨 수업을 수강하고 싶은지 제출하는데, 수강신청은 미국 도착 후 OT 주간에 정정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국할 때 짐이 굉장히 많은데, 수하물을 추가 해야 할 정도면 큰 짐은 학교 사이트에 나와있는 본인 기숙사 주소로 미리 보내셔도 됩니다. 우체국 ems는 정말 비싸서 저는 '도어루'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두꺼운 겨울 옷들을 큰 상자로 미리 보냈는데 괜찮았습니다. (캐리어 두 개 들고 가면 여행 때 힘들고 캐리어를 종강 전 한국에 택배로 보내는 것도 생각보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 - 학업, 언어

저는 UCM에서 전공만 4과목을 수강했는데, 전공만 들었던 것이 아직까지 아쉽습니다. 컴퓨터과 학전공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우선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 교수님은 중국인이셨는데 친절하시지만 발음과 억양이 이해하기 살짝 힘들고 수업 퀄리티가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미국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 구조 Mark Grebe 교수님 수업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입문 수업은 한국인 교수님이셔서 수업 스타일과 방식이 편하고 퀄리티도 좋았지만, Python이나 R 같은 데이터 분석 언어가 아닌 엑셀만 한 학기동안 활용했기에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수업 개요를 잘 보고 기왕이면 강의식보다는 매주 **발표나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수업을** 수강해서 힘들어도 영어로 말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위 전공들은 프로젝트 발표 한 번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강의식 수업들이에요). 교환학생 온 김에 영어 실력 향상이나 경험을 위해 다른 전공이나 **커뮤니케이션/어학 수업**도 몇개 수강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봤을 때 어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수강하기에 친해지기 좋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가 영어 스피킹 실력 향상이었는데, 꿈꿨던 원어민 급 영어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듣기 실력이 조금은 늘었고, 여행이나 기본 회화에서 전보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세 달 정도 회화 학원에 다녔던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미국인들과 친해지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나 동양권 문화에 관심 있던 친구들 몇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적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한 적은 전혀 없지만 그냥 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ㅎㅎ cs 전공이라 그런지 여학생도 많이 적었습니다) 동아리 등에서 국적 상관 없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영어로 많이 말해보세요!

**- 생활과 의식주**

UCM은 정말 한적합니다. (공항을 갈 때면 편도로 약 10만원의 우버를 미리 예약해놔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약 4개월동안 정말 여유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할 게 없으니 주에 4-5일 정도는 rec 센터에 가서 평생 하지도 않던 운동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수업 가고 밥 먹고 쉬다가, 저녁 먹고 운동 가거나 친구들과 노는 규칙적인 일상을 반복했습니다...ㅎㅎ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날들이면 남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개발 공부도 틈틈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과 한식이 그리웠던 점 빼고는 스트레스도 적고 아주 여유로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Warrensburg 다운타운도 걸어서 15분 정도라 여러 가게도 도장 깨기 하듯 가보고, 학교 내에 작고 큰 행사가 (특히 학기 초) 많아서 귀찮음만 마다한다면 여유로우면서 동시에 새로움도 공존하는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Rec 센터와 다운타운**

추가로 의식주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East Ellis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엘리스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Apartment 외의 모든 Residence Hall은 옆방과 화장실만 공유하는 같은 구조이지만, 엘리스는 가장 오래된 건물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장점은 바로 아래에 Ellis Dining이 있어 밥 먹으러 가기 편하고, rec 센터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2인실 방을 혼자서 쓰는 Single room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10월 초에 갑자기 Apartment인 Foster Knox 순번이 빠졌다는 메일을 받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Residence 기숙사는 공용 주방이 하나 있지만, Ellis 부엌은 지저분하고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거나 자리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형식 기숙사는 각 방에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어 넓고 요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원하는 룸메와 함께 살 수 있어 친한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한식도 자주 해먹고 친구들도 초대하기 좋아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산 Foster Knox는 엘리스 같은 Residence Hall 방 두 개를 합쳐 방 한 개를 거실과 부엌으로 개조한 구조라,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나름 편안하고 포근한 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녹스 거실 사진 / Todd 다이닝

음식은 주로 해먹거나 Dining(Todd, Ellis)을 가서 해결했습니다. Dining은 초반에 몇회권을 끊어야 할지 고민하실텐데, 자주 해먹는 편이라면 50회도 많습니다. 주로 샐러드, 샌드위치, 시리얼 등이 나오는데 Todd의 Trends에서 가끔 나오는 **grilled** 샌드위치와 Ellis의 샌드위치, 주말 아침 식사가 맛있습니다. Dining 횟수를 아끼고 싶어 종종 락앤락 통에 조금씩 싸가서 기숙사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다이닝 달려도 있는데, 신용카드 대신 애플페이처럼 간편하게 세금 없이 교내 스타벅스나 칩필레 같은 가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달라는 처음부터 충전하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매달 한 번 정도 있는 \$100 충전 시 \$10~\$20을 덤으로 주는 행사 기간에 충전하시면 더 이득입니다.

또한 초반 OT 주에서는 UCM 국제학생처에서 음식을 준비해주시는데, 피자과 맛이 없는 밀가루 음식만 주셔서 한식이 엄청 그리웠습니다... 초반을 위해 참치나 김, 핫반, 고추장 같은 한식을 조금이라도 챙겨오세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6시 반에서 8시 사이에 2-30분 간격으로 union 뒤쪽에 오는 월마트 셔틀을 타고 월마트에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일이 정말 싸고 맛있고, 월마트에도 조금이지만 비싸게 라면과 핫반 등을 팔기는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산 이후로는 음식을 많이 해먹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마존으로 이것저것 기숙사 주소로 시키셔도 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3시에 rec 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cupboard**라는 행사가 있는데, 빵 종류는 많지만 유통기한이 거의 지난 것이 많기에 꼬아보자면 파스타 소스나 면, 냉동 고기 등이 요리해먹기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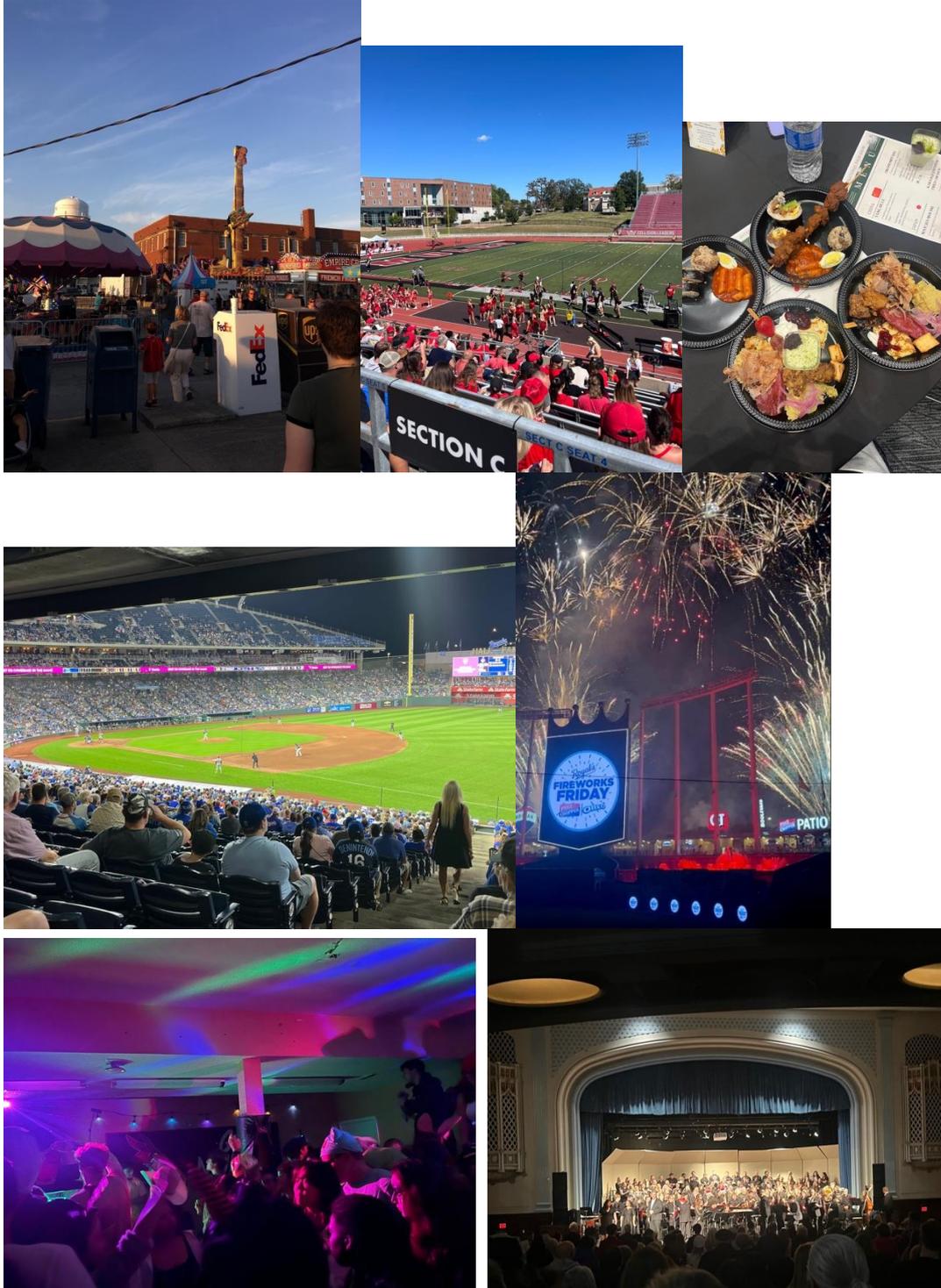
계절은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뜨겁기에 썬크림, 수분/보습이 잘되는 기초 제품, 마스크팩 등을 넉넉하게 챙겨오세요. 올리브영 해외 배송이나 아마존이 있지만 한국보다 꽤나 비쌉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한국에서 택배를 한 번 더 받을 생각으로 두꺼운 옷을 많이 챙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 타이밍이 애매해져 해외 배송이 되는 한국브랜드 등을 찾아 아우터를 사서 입었습니다.

- UCM과 Warrensburg 행사, 활동

UCM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꽤 많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Kick-off 행사, 놀이기구가 많았던 다운타운 야시장, 학생들이 여는 할로윈 데이 파티, ISO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푸드쇼, **free bowling day**, 오케스트라 캐롤 연주회 등 잘 찾아보면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데, 귀찮더라도 갔던 것이 저에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UCM Mules가 풋볼로 유명해서 풋볼장에서 경기도 꽤 자주 하는데 한 번 가서 구경한 것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ISO 동아리는 \$15~\$20만 내고 가입하면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들, 국제 학생들이 많아 새로운 친구들을 알기 좋고, 친구들이 파티를 열기에 가보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IEP 어학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돈을 좀 내고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보통 1시간 거리의 캔자스 시티 방문)에 종종 참여할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건 Kansas city의 Royals 야구 경기를 봤던 경험입니다. 야구 룰을 전혀 몰랐는데도 mlb의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는 WhatsApp 국제학생 단체 채팅방이나 ISO 채팅방으로 친구들이 많이 안내 해주고, IEP의 행사도 게스트 초대가 종종 가능하니 소식들을 잘 확인하면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귀국 준비 및 여행

11월 말 땡스기빙 주간이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학교 안에서 택배를 한국으로 바로 보낼 만한 곳은 없고, 방문 택배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려면 차가 있는 친구나 ucm 내에서 알게 된 지인, 교수님 등에게 부탁하여 usps나 ups에 방문하셔서 짐을 부쳐야 합니다. (usps는 다운타운 쪽이라 걸어서 15-20분 정도, 박스들도 판매해요) usps, ups 공식 사이트나 직접 가서 한국 집주소 직행으로 택배를 보내면 너무 비싸서 파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대행 업체를 찾는 것이 좋은데, 저는 KT Express라는 곳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배송 대행지까지 보내는 것도 꽤 비싼데, usps, ups 공식 사이트 송장을 뽑아 결제하는 대신에 송장을 싸게 미리 뽑을 수 있는 비공식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쌉니다! 이 덕에 택배비를 줄이고 최대한 많이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기 기준으로는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습니다. 9월 1일 노동절, 10월 중간고사 이후 Fall break, 11월 땡스기빙 주간 약 9일 등인데, 지금 여행을 안가면 언제 또 미국에 오나 싶은 마음에 여행을 꼭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강하고 기숙사 방을 빼고 2주 동안 연속으로 여행도 다녔는데 장기 여행은 생각보다 체력이 지치고 연말이라 사람이 많았어서, ucm 휴일을 잘 이용해서 틈틈이 다녔던 게 더 즐거웠습니다. 특히 땡스기빙이나 연말 여행은 늦어도 1달 전, 빠르게는 두 세 달 전에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한국 교환학생들과도 금새 친해져 마음 맞는 친한 지인들과 금방 여행을 계획 했어서, 이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 - 배운 점, 결론

무엇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생활력입니다. 혼자 상경해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난관들이 많았던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환 생활에서 중요한 건 의지력입니다. 그냥 미국에 온다고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엄청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의지를 다져 온 교환학생이었지만, 역시 이것도 학교 생활인지라 끝으로 갈수록 수업 들으러 가기 귀찮아진 적도 종종 있었고 행사가 있다하더라도 그냥 누워 있고 싶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생활동안만이라도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도전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학교 생활인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게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배울 수 있었던 건 생각의 깊이입니다. ucm이 평화로운 공간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유롭게 남는 시간이 꽤 많았고, 그만큼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이전과는 색다른 고민도 해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국인과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 마인드 등을 관찰하고 대화하며 느꼈던 건 세상에 사는 길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가면 다 경험이 된다'라는 뻔한 말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아마 그 말 뜻이 여러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며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아가겠다 같은 거창한 미래를 그리지 않더라도 일단 저에게는 교환학생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여 적어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뭔가 따뜻하고 뿌듯하기도 하니 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단 가기 위해 최선을 노력하고, 최선을 즐기고 돌아오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지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 빅데이터융합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1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1. 위치 및 교통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는 Missouri 주의 Warrensburg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Warrensburg는 도시 자체가 정말 작으며 주변에 도시가 있다면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Kansas City와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St. Louis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버스나 지하철 등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에서 월마트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학교 근처에 있는 월마트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특히 Kansas City에 공항과 쇼핑몰 등이 있어서 꽤 자주 가게 될텐데 학교에서 Kansas City까지 왕복하는 셔틀이 없어 우버를 이용하거나 암트랙이라는 기차를 타거나 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암트랙은 우리나라의 무궁화호 같은 미국의 기차로 암트랙을 이용하면 Kansas City까지 편도 1시간, St.Louis까지 편도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학기 초에 제공하는 암트랙 할인 코드가 있어 이걸 적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있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다면 라이드를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더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크기는 하지만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한적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좋습니다.

#### 2. 기숙사 및 아파트

저는 Ellis라는 기숙사에서 1학기를 지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On Campus에 해당하는 기숙사나 Crossing이라는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는데 되도록 빨리 신청하셔서 Crossing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Ellis가 다른 기숙사보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과 거리가 있고 공용 주방이 너무 작아서 요리를 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와 Crossing을 모두 신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Crossing을 떨어져도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으나 Crossing이 훨씬 쾌적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꼭 Crossing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숙사와 Crossing 둘 다 신청한다면 보증금은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바로 Crossing에 못 들어갈 수 있는데 UCM 담당자님께 메일로 대기 리스트 여쭙보면 빠르게 알려줍니다.

저는 2인실을 사용하였는데 처음에 배정받았던 룸메이트가 밤마다 큰 소리로 유튜브를 보거나 기도를 해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방이나 룸메이트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교환학생 생활 중 만난 한국인 친구와 룸메이트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 룸메이트와 정서나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빨래는 기숙사마다 공용 세탁실이 있어서 무료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무료 셔틀을 타고 월마트에 다녀올 수 있고 아마존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 교회에서 학기 초반에 지난 학기 학생들이 쓰던 물품을 기증받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니 이때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배송을 많이 시키는데 학생 메일로 가입하면 6개월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어 구독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존보다 월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월마트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요리를 많이 하게 될텐데 조리 도구는 공용 주방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웬만해서 학기 초에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끼리 함께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3. Meal Plan 및 식당

Crossing에 산다면 각 집마다 주방이 있어 meal plan을 거의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기숙사는 공용 주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요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밀플랜을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Meal Plan은 학교 다이닝 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학식과 같은 개념으로 Ellis와 Todd 두 다이닝 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Todd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Meal Plan 외에도 Dining Dollars라는 것을 학생 카드에 충전해서 학교 내에 있는 식당이나 스타벅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결제할 때 상품에 표기된 금액에 별도의 세금을 더해야 하는데 다이닝 달러로 결제하면 별도의 세금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스타벅스, 칩필레, 타코벨, 편의점 등이 있고 크로싱 건물 아래에 스피ن 피자, 스타벅스 등이 있습니다. Ellis 근처에는 홍콩 익스프레스가 있고, 다운타운까지 좀만 걸어가면 카페나 펍 등이 있습니다.

### 4. 학교 생활

빅데이터융합전공인 저는 UCM에서 전공이 Data Science으로 되었습니다. 전공 과목은 Data Science 과목인 Introduction to Data Analytics 와 Computer Science 과목인 Computers and Modern Society을, 나머지는 History of the Early History와 Intro to International Studies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전공 학점을 빨리 채우고 싶어서 전공 과목을 2개를 수강하였으나 공대 수업 자체가 쉽지 않고 또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과제나 시험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점을 채우는 것이 급하지 않다면 1000년대 수업이나 가벼운 과목을 수강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Introduction to Data Analytics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나 단계를 배우는 수업으로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를 골라 이에 맞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한국계 교수님이셨고 과제 기한이 여유롭고 기한 연장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수업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과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 Computers and Modern Society

데이터 과학 전공 수업 중 교환학생인 제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없어 대체제로 들었던 컴퓨터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논쟁을 주로 다루고 교수님께서 매주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 토론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두려웠으나 나중에는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배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 과목은 페이퍼를 한 학기에 4번을 써서 제출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자주 작성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작문 실력은 향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팀플이 하나 있는데 크게 부담 가질 만한 과제는 아닙니다.

#### History of the Early History

역사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서 수강하였으나 교수님께서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고 시험을 3번이나 봐야 합니다. 다행히 시험 중에 a4 1장 분량의 메모를 볼 수 있게 허락해주시지만 배우는 양이 꽤 많아 메모할 양이 상당했습니다. 페이퍼도 학기 중에 한 번 작성해야 했고 5번의 퀴즈도 있고 결코 쉬운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나 수업 방식이 미국 현지의 대학 수업다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Intro to International Studies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한국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셔서 수강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국제 이슈에 대해 다루는 강의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번의 시험이 있었으나 어렵지 않아 괜찮았습니다.

## 5. 여행

가을 학기에 교환학생을 오게 된다면 노동자의 날, 가을 방학, 추수감사절 방학, 겨울 방학 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캔자스 시티나 세인트 루이스에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동부나 서부로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캔자스 시티, 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뉴욕,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LA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종강 이후에 3주 정도 학기 중에 가지 못했던 도시들을 가면서 여행했습니다.

## 6. 기타

UCM은 국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ISO라는 국제 학생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른 국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미국 현지 가족들을 연계해주는 **friendship family**를 신청하여 미국 현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학교 주변에 시설이 부족해서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학교 자체에서 열리는 행사가 꽤 많아서 참여해보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7. 느낀 점

미국에 가기 전에는 같이 파견되는 학생들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타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 적응하였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며 즐거운 한 학기를 보내 만족스러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미국과 한국에서의 강의 방식의 차이점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방식과 포용력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서윤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2월 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내용

#### 1 UCM을 선택한 이유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UCM)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UCM의 등록금이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교환 학생들이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대학 간의 등록금 차이가 상당하여 많은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UCM에 대한 다양한 교환학생 후기와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경험담을 통해 학교의 분위기, 학업 과정,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가 UCM에서의 경험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 2 UCM의 장단점

##### ① 학교 위치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UCM)는 흔히 "미국 시골 대학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의 위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UCM이 위치한 워렌스버그 지역은 대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축제는 곧 동네 축제로 이어져,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워렌스버그의 다운타운에는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활이 다소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② 학교 시설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UCM)의 수업 공간은 대체로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모든 강의실이 신축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라운지와 도서관 또한 잘 마련되어 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숙사의 경우, 대부분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크로싱"이라는 아파트 형태의 기숙사는 부엌이 있어 개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엘리스" 기숙사는 시설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곳으로 여겨지며, 그 외의 기숙사들은 평균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무난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타 여가 시설인 UCM의 헬스장은 크고 다양한 운동 기구가 구비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운동 도구를 대여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여가 시설은 달라진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③ 학교 수업

UCM에서의 수업은 선택한 과목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어학 수업과 국제학 수업을 각각 2개씩, 총 4개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어학 수업에서는 교수님들이 매우 친절하며, 특히 교환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학 수업은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교환학생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국제학 수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목이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방식, 과제, 그리고 시험이 상당히 도전적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게 되어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④ 그 외 학교 프로그램

UCM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중, 저는 국제학생 동아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동아리는 UCM 소속의 학생들과 다양한 국가의 교환학생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동아리를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동아리 등록 주간에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 부스가 설치되어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교환학생 후기

저의 개인적인 교환학생 후기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경험해야 할 값진 경험이 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교환학생 생활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급변하는 환경,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다면, 저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교환학생 생활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변지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Institut de langue et de Culture Francaises (ILCF)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월 3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 1) 수업 및 학교생활

저는 2024년 2학기 프랑스에 위치한 ILCF에 1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학기 동안 1er semestre intensif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 화, 목, 금에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과 수요일에 실시되는 *ecrite & orale*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며 오전 수업은 8-12시, 오후 수업은 1-5시에 진행됩니다(쉬는 시간은 20분 정도 있습니다.). 또한 입학 전에 시행했던 레벨테스트로 group을 1-20반까지 나누어 반이 배치됩니다. 개강 후 1주일 간 반 변동이 가능합니다. Group 마다 요일 별 2~3분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가르치시고 수업 내용은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치르는 시험은 쪽지 시험(반 마다 다르게 진행)과 종강 직전 파이널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적 반영 비율은 대략 쪽지 시험 30%, 파이널 테스트 70% 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은 총 2번으로 10월 말에 약 1주일 넘지 않는 기간과 12월 말~1월 초 약 2주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 2) 기숙사

저는 *maison saint-bernard*(신관)에서 거주하였고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달 기숙사비는 한화로 약 90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기숙사 시설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맞게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층에 있는 방에 배치되었고 방 내부에는 침대, 책상, 화장실, 냉장고, 서랍, 히터가 있습니다. 주방은 공용주방을 사용했고 한 층에 2개의 주방이 있으며 자기 방 호수에 맞게 지정된 주방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어 친구들과 함께 다른 주방을 쓰거나 해도 무관합니다.

0층에는 공용 독서실, 스터디룸, 책방, tv룸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자주 이용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 새벽까지도 같이 공부하거나 놀 수 있어서 기숙사 생활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입니다.

-1층에는 공용 세탁실과 공용 주방, 탁구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 3대씩 있고 핸드폰에 세탁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제가 자주 이용했던 공간은 공용 주방입니다. 공용 주방은 관리자분께 미리 말씀드려서 장소를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기숙사생 환영 파티 및 갈레뜨 만들

기, 간식 나누기, 헌 옷 바자회 등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주었습니다.

### 3) 위치

학교 및 기숙사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와 역은 아주 근접해 있어서 동네 밖이나 방학 기간에 여행을 위한 버스를 타기에도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다양한 상점들과 마트, 식당, 광장이 위치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기숙사와 학교 사이에는 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날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강가에 앉아있기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오른쪽으로 걷다 보면 리옹에서 유명한 구시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시가지로 가면 광장 쪽과는 또 다른 느낌의 카페들과 식당,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프랑스의 가정식도 먹고 여러 디저트들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입구에 푸비에르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을 보러가기 위해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면 리옹의 아름다운 전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인마트나 대형마트는 트램을 타고 가야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쓸 물건이나 먹을 식재료들은 학교 인근에 있는 마트나 가게들에서 다 구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학교나 기숙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 4) 소감

저는 한 학기만 파견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지금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 프랑스어이기는 하지만 교환학생을 가기 전과 초반에는 현지인들이 구사하는 프랑스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강할 때쯤 생각해보니 이제는 프랑스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 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상 소통 정도는 모두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원어민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대화해보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언어실력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단지 좋고 행복한 시간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현지에 적응하는 것과 일상 속에 어려움도 분명 존재했겠지만 그런 것들 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기에 저는 많은 학우분들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송현호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2월 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10월 1일에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리옹 공항에서 내려서 론 익스프레스라는 공항과 도심을 연결해주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걸 타면 되는데 25세까지는 편도티켓 기준으로 5.5유로가 더 싸니까 Young(12-25years)Single ticket을 사면 됩니다. 이 후 part-dieu역에서 T1트램을 타면 Perrache역에서 내리게 되고 역에서 10분정도 걸어가면 Maison saint-bernard 기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거주 기준으로 월세는 한달에 579유로 였고, 방의 면적에 비해 비싼 느낌이 있지만 밤 10시 이후에 외부인이 출입이 불가능하고, 0층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층마다 공용 주방, 식기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11월 중순 즈음 되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개강은 10월 7일이였고 저는 오전 수업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쉬는 시간은 10시부터 10시 20분 또는 30분 까지 쉬는 시간이 제공되었습니다. 학교 0층에는 매점도 있어서 쉽게 빵이나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은 월, 화, 목, 금이고 intensive 수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쓰기와 읽기 수업을 집중적으로 했고, 순서대로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게 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수업 교재는 Edito A2책으로 진행이 되었고 선생님이 어느 서점에 재고가 있는지 알려주셔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고민이 되었던 것은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같은 반에 다른 한국인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문을 읽게 시키기도 하고 짧은 듣기 후에 어떤 내용이였는지 말하게도 시키고, 친구와 짝지어서 대본을 짜고 대화하고 발표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체로 쓰실 때가 있는데 아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바캉스는 10월 말에 1주일 정도 있습니다.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게 좋습니다. 리옹은 지리적으로 여러 나라를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만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저는 파리나 다른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TGV max를 구독했는데 한달에 79유로로 TGV에서 무료좌석을 지정을 해놓는데 그 좌석을 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캉스는 크리스마스 와 새해가 껴있는 날로 약 2주정도 되는데 보통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리옹이 비행기로 주변국가가 2시간 내로 걸리기 때문에 일정을 잘 짜놓으신다면 편리하고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는 쪽지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듣기, 독해, 작문, 말하기로 각각 두번씩 진행이 되고 시험범위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DELF 시험준비 하듯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두 번째 바캉스 이후 1주일 뒤쯤 시작합니다. 모든 학생은 아침까지 출석을 해야하고 30분이상 지각하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듣기, 독해, 작문은 하루에 다 보고 말하기는 다음날 치룹니다. 말하기는 10분동안 준비시간을 주고 주제를 뽑고 그에 해당하는 글을 써놓고 말하면 됩니다. 생각이 안나면 힐끔힐끔봐도 되긴 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심예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경영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월 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2학기 파견 교환학생, 경영학 전공 심예지입니다.

먼저,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글로벌한 시각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히는 것이 제 미래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독립심과 자기 계발의 기회라고 생각해, 한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며 더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커리어와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1. 미국에서의 학업 경험

저는 한 학기 동안 총 12 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전공 수업으로는 *Digital Marketing 3450* 과 *Marketing 1401* 을 수강했으며, 나머지 두 과목은 영어 수업과 커뮤니케이션 수업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더 듣고 싶었지만, 기본 등록금 외에 추가 수업료(Fee)가 발생하는 과목들이 있어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수강신청 시 "Fee" 표시가 없는 과목은 추가 비용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Marketing 1401* 수업은 Taylor 교수님과 함께했으며, 한 학기 동안 총 4 번의 발표를 해야 해서 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수업 역시 발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역시 4 번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다른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구처럼 대화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신선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긴 했지만, 전체 성적에서 각 주차별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은 꾸준히 학업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 2. 기숙사

제가 거주했던 Houts 기숙사는 비교적 좋은 시설로 평가받는 곳으로, The Crossing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기숙사였습니다. The Crossing 은 아파트 형식의 기숙사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비용이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가장 비쌌습니다. 작년 파견 학생들은 대부분 The Crossing 에 거주했다고 들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한국인 학생 중 단 2 명만 The Crossing 에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Houts, Ellis, Fitz, Nickerson 등 다양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The Crossing 은 높은 비용만큼 다른 기숙사보다 몇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학기 중 Fall break 방학이나 Thanksgiving 방학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숙사는 문을 닫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계속 머무를 수 있었지만, The Crossing 은 추가 비용 없이 거주가 가능했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기숙사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The Crossing 과 같은 인기 있는 기숙사를 원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저는 Houts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Houts 는 작은 부엌이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해 학식당(Todd Dining Hall 또는 Ellis Dining Hall)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학기 초에 80 개 식사 플랜을 결제했고, 학기 말에는 부족해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Houts 는 Todd Dining Hall 과 1 분 정도 거리라 매우 편리했습니다.

학식당을 비교하자면, Todd Dining Hall 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음식이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 1 회 제공되는 특별 점심 메뉴(11:00~13:00)는 Todd Hall 에서만 제공되었습니다. 반면, Ellis Dining Hall 은 요청하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 3. 학교 시설과 주변 환경

캠퍼스 내 주요 행사는 대부분 Union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Union 에는 스타벅스, Chick-fil-A, Taco Bell, 편의점 등이 있어 자주 이용했습니다. 특히, Union 지하에는 무료 프린트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과제를 준비하기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스타벅스는 Union 안 뿐만 아니라 The Crossing 앞에도 하나 더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대형마트 두 곳, Walmart 와 Hy-Vee 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 시에는 셔틀버스가 Walmart 까지 운행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몰려 줄을 서야 하니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Hy-Vee 는 셔틀버스가 없어 도보로 약 20 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Ellis 기숙사 건물 1 층에 편의점이 새로 생겨 간단한 물품이나 스낵을 구매하기에 더 편리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캠퍼스가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차를 가진 친구와 함께 Kansas Cit 를 방문하거나, Amtrak 기차를 타고 St. Louis 를 여행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산책을 하거나, 학교 체육관인 Rec Center 에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Rec Center 에서는 스트레칭 도구, 농구공, 배드민턴 라켓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 4. 생활 팁 및 친구 사귀기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면서 몇 가지 준비물과 팁을 알려드리자면, 한국에서 돌돌이와 구멍 뚫린 욕실 실내화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면 유용합니다. 또한, 옷걸이는 다운타운에 있는 Secondary Shop 에서 무료로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주로 파티나 행사에서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동아리에서 여는 파티가 밤 10 시 이후에 열리는데, 파티에서는 춤을 추며 즐기거나,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미국 대학생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주리는 대도시가 아닌 비교적 작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각보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며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거나,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 5. 교환학생 후 배운 점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학업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각과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의 방식,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배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언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에세이를 작성하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현지 친구들과의 대화와 그룹 활동은 실용적인 영어 표현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한국을 떠나 혼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기숙사 생활, 학업, 그리고 생활 전반을 스스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하며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환학생 경험은 제 학문적,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와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해외 유학을 넘어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며,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주변에서 교환학생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주저 없이 추천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배우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양서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글로벌지역학부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월 2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2024년도 2학기에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로 어학교환학생을 다녀온 글로벌지역학부 양서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지역학부는 학부 특성상 6개의 국가 중 한 국가를 선택해 전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영어권 국가를 전공으로 하게 되면서 영어권 국가에서 한 번쯤 생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교환학생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학교환으로 다녀온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학교는 미국 Missouri주에 있는 Warrensburg 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학교 근처에 Kansas City 라는 큰 도시에는 Kansas City Royals 라는 야구팀과 Kansas City Chiefs 라는 풋볼팀이 있어 MLB 와 NFL 모두 한 번에 즐겨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ELI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미디어로만 접했던 미국의 야구인 MLB를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도시는 정말 작은 마을로 대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는 마을의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교 주변엔 즐길 거리가 없어 초반엔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미국의 삶을 즐기며 지내야 하나 걱정이 들었는데,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적어지고 오로지 학교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나니 짧다고 말할 수 있는 한 학기, 약 4개월 동안 미국의 대학교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근처의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치안이 좋아, 저는 매일 밤 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학교의 저렴한 학비가 이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한 학기를 지내보니 이 대학교의 위치가 저에게 가장 장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까지 휴학 없이 수업과 학원을 병행하던 삶에서 이 곳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며 제 삶을 환기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변화를 먼저 말해보자면, 사실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진 않았습니다. 반년도 아닌 4개월 한 학기로는 영어 실력이 늘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실제로도 영어 실력의 향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영어가 전공임에도 항상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약 4개월을 영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로 미국의 대학교에는 더욱 다양한 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대화 방식, 성격 차이 등을 직접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교류는 제 한국에 틀에 박힌 사고를 넓혀 주었고 자연스럽게 많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다양한 언어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국어는 보통 영어, 스페인어, 인도어 총 3개의 언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특히 인도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영어를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간 그들

과 소통하면서 익숙해져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영어 발음을 경험하고 적응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삶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쯤 생활해보고 싶고, 영어를 늘리고 싶다 라는 막연한 희망 사항으로 오게 된 교환학생은 생각보다 저에게 긍정적인 쪽의 변화를 주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었고 똑같았던 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환학생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지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 디지털만화영상전공
파견시기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UNY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2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정규교환학생으로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한 학기 수학했습니다. 스토니 브룩은 뉴욕 주립대학교로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어요. 만화 전공은 애초에 전공 관련 수업을 보유한 자매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학교 자체보다는 뉴욕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선택했습니다.

뉴욕은 브로드웨이부터 메트로폴리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가 대단하기 때문에 스토니 브룩에 오시는 분들은 꼭 최대한으로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학생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서점이나 전시, 공연 등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시티에 나갔는데도 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위치한 롱아일랜드 동부는 한적하기 때문에 도시와 교외의 장점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밤에는 별이 곧잘 보이고, 캠퍼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슴이나 토끼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어요. 특히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Port Jefferson village**가 예뻐요.

교환학생 신청 전에는 한 학기는 너무 짧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저에게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 <수업>

\*강의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글링을 통해 직접 학생들의 후기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Introduction to Digital Arts

-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양식의 디지털 아트를 보고 직접 제작해보는 수업입니다. 이론과 실기가 병합된 강의이기 때문에 3학점이지만 3시간짜리 수업을 주2회 실시합니다.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에 대한 기초가 있다면 실습 자체에서 얻어가는 것은 크게 없으나, 작품에 추상적인 철학을 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의 작품들을 보며 감상을 나누고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Acting

- ‘자유로운 미국 대학교의 수업’이라는 이미지에 딱 맞는 강의로, 부담 없는 교양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본격적인 연기 이전에 학생들이 편안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며, 수업 특성상 친구들과 교류하기에도 좋습니다. 열정 넘치는 파트너를 만나 정말 즐겁게 들었던 강의입니다.

## Visual Storytelling

- 시각적 연출이 끼치는 영향을 여러 분야에 걸쳐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매 수업마다 이론 강의 후 팀별로 교수님이 제시하신 주제에 맞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딱딱한 강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시된 주제가 대개 재밌기 때문에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입니다. 직접 영상을 찍는 만큼 팀에 따라 친구 사귀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속해 있던 조의 경우 팀 변경 공지가 뜨자 저희 팀의 고정을 따로 부탁드렸을 만큼 사이가 끈끈했습니다. 촬영 시간이 끝난 후에는 각 조의 영상을 다같이 감상하는데, 대부분 웃겨서 깔깔거리며 봅니다. 이 때 촬영한 영상들은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또한 과제가 따로 없으며, 기말 프로젝트만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꿀강이라고 생각합니다.

## Creative Writing

- 여러 장르(논픽션, 픽션, 시)의 글을 써보는 소규모 강의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읽거나 워크샵을 통해 서로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을 능동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덕분에 같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시를 쓰는 게 두 언어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져 재밌었습니다.

## Race, Humor, and Asian America

- 인종차별, 성차별, 과시즘이 어떻게 유머로 승화되는지와 유머의 본질과 양면성에 관한 수업입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라 수강했는데, 3학년 수업인 만큼 난이도가 높아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 수업마다 2~40페이지의 에세이를 과제로 읽은 후 강의 시간에 이를 인용하여 토의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번의 에세이 과제가 있고, 중간고사로 에세이, 기말로 팀 프로젝트까지 하느라 많이 시달렸네요. 그래도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 <학교생활>

-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CorQ 어플을 통해 날짜별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welcoming week** 주간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벤트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의 **Beyond the Brook** 카테고리를 통해 맨해튼이나 인근 지역의 투어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의 여신상 투어, 승마 체험과 보태니컬 가든 등을 다녀왔어요.
- **Health center**에서는 무료로 HPV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학교 돈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영어는 진심으로 자신감이 반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며 팬스레 움츠러들었던 기간도, 자신감 넘쳤던 기간도 있었는데 같은 영어 실력인데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어 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작정 내뱉어야 합니다.

## <동아리>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학기 초 동아리 홍보 주간엔 여러 부스를 둘러보면 됩니다. 이때 한 군데만 찍어두지 말고, 여러 동아리의 **GBM(OT)**에 참여해 분위기를 파악한 후 본인에게 맞는 곳들에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서너 개 정도 둘러본 후에 **Ice Crew**에서 활동했습니다. 학교 아이스하키 경기를 응원하고 보조하는 동아리였는데, 티켓이나 굿즈 판매, 간단한 치어리딩을 했어요. 홈 게임마다 아이스하키 경기를 코앞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유니폼과 스케이트 때문에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초기비용이 꽤 셉니다. 대신 스케이트는 겨울에 브라이언트 파크 윈터 빌리지에서 무료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으로 뺄 수 있어요. 활동 자체는 신선하고 재밌었지만 부원들과 많이

친해지지는 못 했습니다.

### <기숙사>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west apartments**로 배정이 됩니다. **west**는 싱글 룸 2개, 더블 룸 2개로 총 6명이 하나의 **suite**를 공유하는 구조예요. 건물이 열 채가 넘는데 알파벳이 앞 순서인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낡았지만 메인 캠퍼스와 가깝고, 뒤로 갈수록 더 깔끔한 대신 거리가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도어락이 아닌 열쇠를 쓰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더블 룸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temporary triple**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체크할 경우, 방이 모자랄 시에는 자리가 날 때까지 3명에서 2인실을 쓰게 됩니다. 드물지만 1인실을 신청했거나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정되는 경우도 봤어요. 대신 3명에서 지낸 기간 동안은 비용을 할인해줍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었던데다가 룸메이트들과 친해져서 정말 다행히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기숙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학기 종료 후 적지 않은 금액을 환불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 <식사>

**west apartments**에는 부엌이 있기 때문에 밀 플랜을 신청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한식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Weee**라는 온라인 아시안 마트 플랫폼을 사용하면 기숙사로 쉽게 한국 식재료를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친구를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요리해주시기도 했어요.

학식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GET**이라는 어플을 통해 다이닝 달러를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식당은 **east**와 **west**의 **dining hall**, **SAC**과 **Roth**의 푸드코트, 그리고 아시안 푸드코트인 **Jasmine**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Jasmine**이나 **SAC** 광장의 할랄 푸드트럭을 이용했습니다.

학교 근처의 식당은 기차역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식당들이 인기가 많았고, 저는 룸메이트와 **Ichi Ramen**을 자주 갔었어요.

### <교통>

- 캠퍼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노선의 셔틀버스가 교내를 계속 순환합니다. **SBU Transit** 어플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말에만 운행하는 노선도 있습니다(토-Port Jefferson, 일-Shopping route).
- 교내 따릉이도 있기는 한데(1시간 무료) 저는 주차가 번거로워서 거의 안 썼습니다.
- 롱아일랜드의 경우 51번 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SBU** 학생증 제시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맨해튼까지는 학교 기차역을 이용하면 편도 2시간이 소요되며, **MTA** 어플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저는 교환학생 기간 내내 시간이 아까웠어요.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고자 노력했고, 덕분에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반드시 많이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낯선 환경에서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험이 확실히 성장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 학기 중: 매주 주말, 혹은 갑작스러운 공강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시티로 나갔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fall break이나 Thanksgiving을 활용하면 좋아요. 뉴욕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카고, 토론토, 라스베이가스, LA, 몬트리올, 퀘벡을 여행했습니다.

- Grace period: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뉴저지, 보스턴, 마이애미, 푸에르토리코, 샌프란시스코, LA에 다녀왔어요.

보통은 학기 중에 동부를 여행하고 학기가 끝나면 남부나 서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도 물론 행복했지만, 혼자 떠났던 곳들이 유독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롯이 나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넓은 국토에서 오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연 경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그랜드 캐년에서 맞이한 일출은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 타지에 나와 있는 만큼 언제나 안전을 1순위로 유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결국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더라고요. 혼자 가게 되어 처음에는 외롭고 불안했지만 오히려 그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시시콜콜했던 일상이나 부정적인 경험마저도 결국에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막막하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에 최대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스토니 브룩으로 교환학생을 오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지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1월 3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교는 프랑스의 Lyon 에 위치한 UNIVERSITE CATHOLIQUE DE LYON 부설 어학원 ILCF ( INSTITUT DE LANGUE ET DE CULTURE FRANCAISES ) 입니다.

1948년 설립 이래로 프랑스어 비 원어민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온 기관입니다.

ILCF 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산지인 Lyon 의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강하기 전 각자 메일로 온 링크를 들어가서 레벨테스트와 개강 바로 직전 가벼운 구술시험 겸 면담을 통해 반이 정해집니다. 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반의 평균 인원은 대략 10 ~ 15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은 오전반(8:00 ~ 12:00) 과 오후반 (13:00 ~ 17:0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일 첫째주 수업을 듣고 레벨이 맞지 않아 선생님께서 말씀드려서 반을 옮길 순 있지만 오전 오후반을 선택하여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금 4시간씩 수업을 진행했고 중간에 20분 정도 쉬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2시간씩 2명의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일 수업은 다른 요일의 수업보다 활동적이었습니다.

시험은 쪽지 시험과 파이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쪽지 시험은 파이널 테스트 보던 가벼운 형식이었지만 두 시험 모두 델프 시험처럼 보았습니다. 성적은 쪽지 시험, 파이널 테스트, 출석 모두 반영되니 모든 시험에 대한 준비는 잘 해야 합니다 ! 만일 쪽지 시험의 난이도가 관찮게 느껴진다면 파이널테스트는 무난하게 치를 수 있을 것 입니다. 학교는 PERRACHE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기차, 트램, 버스 등을 타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리옹 관광지로 유명한 Belecour, vieux lyon 등 도보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학교 바로 앞에서 크리스마켓이 열려 방문하기 좋습니다.

### ☞기숙사

저는 st.Bernard 에서 머물렀습니다.

### -장점

1.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 밤 10시 이후 사용x, 너무 느림, 올라가기만 가능)
2. 구시가지 (vieux Lyon) 바로 옆에 위치해서 놀러가기 좋아요
3. 0층에 자판기가 있어서 편의점 가기 귀찮을 때 이용하기 좋아요
4. 학교와 가까워요 ( 대략 10-15분 )
5. 지하에 작은 헬스장 있어요
6. 0층에 공부할 수 있는 회의실들이 있어요
7. 티비룸과, 음악실 등 다양한 방들이 있어요

8. -1층에 큰 공용 주방이 따로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고 파티할 수 있어요
9. 세탁기와 건조기 각각 3대씩 있어요 (세제는 따로 마트에서 구매해야하고 앱으로 최소 8유로부터 충전가능합니다)

#### 단점

1. 월세가 비싸요
2. 주방이 12시에 닫혀서 이용 불가합니다 (리셉션분께 양해 구하고 사용은 가끔 가능)
3. 히터가 중앙컨트롤 이라서 21도가 최대입니다 추워요
4. 히터 청소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5. 퇴실 청소 검사 감독에 따라 차이가 커요 (원래 있던 것도 돈 받거나 하는 감독 있음 그래서 초반에 같이 룸체크 할 때 그냥 아주 작은 오염이나 상처도 다 사진 찍어두거나 감독한테 말하는 게 좋음).

#### 생활관련

음식은 u express 가 가장 싸고 품목이 많아서 자주 이용했어요. 트램을 이용한다면 Lidl 도 저렴해서 추천해요. 그리고 LYONNAISE 지역식품가게가 있는데 고기가 맛있어요.

한국 식재료나 중국음식은 supermarché international 이 가장 저렴했어요. 만일 더 많은 한국음식을 원한다면 ace gourmet 에 가세요.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종류가 많아요.

옷은 confluence 아니면 웨스트필드에 있는 프라이마크가 가장 저렴하고 좋아요 (강추해요)

통신사는 free 사용했어요. 저는 e심으로 구매했고 매달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연장을 늦게 한다면 추가 지불있으니 연장하기 5-10 이전에 그냥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리옹은 살기 좋은 도시지만 오후 8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서 갈 곳이 없어요. 또한 일요일에는 마트 포함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으니 그 이전에 장을 보는 것이 좋아요. 트램은 많이 이용한다면 정기권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트레블월렛으로도 결제가 되니까 그냥 그때그때 결제해도 될 것 같아요.

필수품 추천 : 전기장판 (겨울에는 그냥 무조건^^), 트레블월렛, 미니 우산 (리옹은 비가 너무 자주 옴), 불닭소스, 김, 마스크팩, 샤워기&세면대 필터, 상비약 (종류별로, 감기약은 병원에서 지어서 오는 것을 추천해요)

#### ❏ 후기

외국에서의 대학생활은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무척 아쉬움이 컸어요. 저는 되돌아보면 내성적인 성격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거나 수업때 발표를 하는 등 활발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생활하다보면 외국인 친구들과 낯선 문화를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힘들 수 있지만 지내다보면 기숙사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반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저는 학교 수업이 모두 프랑스어로 이루어지다보니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듣기와 말하기에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가기전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프랑스어 공부와 영어공부 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으니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용 주방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텐데 그럴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면 친해지기 훨씬 수월할거예요. 외국인들은 아시아인들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해요. 생각보다 한 학기 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여행 많이 다니고 리옹에서 할 수 있는 경험 모두 한다면 좋은 경험과 잊을 수 없는 경험 많이 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수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경영학부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 제출일	2024년 2월 2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하반기에 UCM으로 한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마친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장수영입니다.

### 1. 파견대학교 정보

저는 정규교환으로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위치한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 한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갔다 왔습니다. UCM이 위치한 Warrensburg는 한국과 비슷한 날씨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히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도 여름에는 한국보다 훨씬 건조하기 때문에 엄청 덥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마트로 Walmart가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신라면, 불닭, 너구리, 핫반 등등이 있어서 라면이나 핫반은 많이 들고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조금 멀지만 Marshalls가 있는데 가격도 정말 싸고 다양한 옷들이 있기 때문에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들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Warrensburg는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에 한인마트도 없고 한식당도 딱 하나 있지만 차를 타고 20분정도 가야 합니다. 따라서 국블럭이나 핫반, 김, 다양한 조미료 등 넉넉히 들고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2. 기숙사 정보 및 추천

UCM은 기숙사와 아파트먼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숙사로 Ellis(east, south, north), Houts, Housey, Fitzgerald, Nickerson, South Yeater이 있고 아파트먼트로는 Forster/nox, Todd, The crossing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대부분 2인 1실로 옆방이랑 화장실 하나를 같이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방 내에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각 층마다 또는 빌딩마다 있는 공용주방에 가서 취사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먼트는 기본적으로 1인 1실이고 주방 및 거실이 있어 취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중에서는 The crossing이 압도적으로 좋지만 그만큼 지원하는 학생들 수가 많아서 만약 학생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바로 기숙사랑 아파트먼트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UCM에 가는날까지 The crossing에 자리가 안나와서 기숙사인 Ellis로 최종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에 ellis에서 Houts로 옮기게 되었는데 일단 Ellis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Houts는 Ellis와 달리 수납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Houts로 옮겼습니다. 또한 Todd dining hall 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날씨가 안좋은 날에도 우산없이 바로 방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숙사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Houts&Housey 추천드립니다!

### 3. 수강과목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때 신청을 할 수 있고 저는 정규로 갔었기 때문에 따로 시험은 안봤었고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과목은 Digital Marketing(전공), Public speaking, Tap dance, Beginning of bowling, Photography입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하면서 들었던 수업을 전공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상명대학교에서 미리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목을 찾아서 해당 교수님께 메일로 대체인정이 되는지 허락을 받은 후에 해당 메일을 과 사무실에 가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교환학생 가기 전에 과 사무실에 미리 이런 방법으로 전공학점 인정이 되는지 여쭙보고 신청하세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수업은 **Digital Marketing**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시험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Photography**입니다. 특히 **Photography** 수업은 교수님이 교환학생들을 잘 챙겨주셨고 수업 외에도 같이 **Trick or Treat**을 하러 간다거나 **Pumpkin patch**, 별 사진 찍으러 가기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Public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매번마다 크고 작은 발표를 해야하고 과제도 많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만큼 영어스피킹 실력이 많이 늘었던 수업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수강과목은 P/F이기 때문에 학교 행사나 친구들과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 4. 학교생활 팁

##### (1) Friendship Family 프로그램 신청

UCM에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Friendship Family**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지 가족들과 교환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3명의 학생이 1가정에 배정됩니다. 보통 메일로 신청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지원이 유도 길게 왜 지원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적으면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가족들과 같이 치킨파이와 바나나푸딩을 만들어봤고 땡스기빙데이에 초대받아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등 다양한 미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2) 동아리 신청

UCM에는 펜싱동아리, 댄스동아리, **ISO(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ISO**에 신청했고 동아리는 아니지만 매일 저녁 7시마다 배구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매일 배구를 했습니다. 먼저 **ISO**는 **Food show**, **Culture night**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친했지만 계속해서 배구모임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붙이다 보니 **Game night**에 초대받거나 배구대회에 나가거나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등 외국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UCM에는 학교 리그가 있는데 만약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다면 동아리나 모임에 들어가서 대회에 같이 나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3) BSU 기부물품

UCM에 BSU라고 교회단체가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기간 때 전 교환학생들이 사용한 물건 등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지퍼팩, 테이프, 전등, 멀티탭, 빨래바구니 등등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서 월마트 가기전에 거기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 월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시는게 좋습니다.

### 5. 후기

미국에서 6개월동안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확실히 영어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현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말을 붙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어를 사용하는게 어색했고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계속 말했지만 영어로 계속 대화를 해볼수록 문장에 어디가 이상한지 이럴 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게 좋은지 끊임없이 생각해보면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신감있게 먼저 다가가서 말걸고 칭찬하고 하다보면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데에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자신감과 먼저 다가가기 2가지 인 것 같아요! 또한 아까전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동아리나 모임에 들어가서 열심히 참여하고 먼저 말걸고 하다보면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지만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가치관을 넓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예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애니메이션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1월 1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1. UCM에 다녀온 장예진의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2학기에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장예진입니다.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웃음이 많으며 긍정적이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조용한 것보다는 시끌벅적한 곳을 좋아하고 낮을 가리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가서도 제가 적응을 아주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2. UCM 선택 이유 :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킴 카다시안 패밀리에 관심이 생기면서 미국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교환학생을 무조건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관심은 높는데 공부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져서 토플 조건 점수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과 짧은 상담 후에 추천해 주신 토플 성적 없이 갈 수 있는 학교인 UCM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 3. UCM 비용 :

저는 정규 교환 학생이 아닌 장학 교환학생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등록금과 자매 대학인 UCM 등록금 두 곳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매 대학교 등록금(수업료+의료보험+기숙사+등등..)만 한화로 약 1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는 한달에 생활비를 많이 쓴 편인데 약 100만원씩 썼습니다.

#### 4. UCM 위치 :

1) Kansas City : 학교와 제일 가까운 도시입니다. Amtrak, Flixbus, 자동차 등등으로 1시간 정도 걸려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주로 Kansas City 공항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UCM의 많은 현지 친구들이 Kansas City 출신입니다.

2) Saint Louis : 학교에서 두번째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Amtrak, 자동차 등등으로 3시간 정도 걸려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뽑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녀온 후기로 위험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3) Warrensburg : UCM 학교가 있는 캠퍼스 타운입니다. 캠퍼스 타운답게 캠퍼스가 위주이고 주위에 다운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10분이면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학교 캠퍼스와 대부분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Warrensburg 캠퍼스에 있지만 간호학과 등등 몇몇 학과는 Kansas City의 Lee summit이라는 곳에 작은 캠퍼스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학과 기숙

사 건물보다는 주차장이 훨씬 넓습니다.

맨 처음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공항에서 학교 셔틀을 타고 1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사람 많은 지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학교를 가는 1시간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농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교환학생을 시작하기 전 학교를 가는 길이었지만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었던 제가 처음 UCM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UCM에 다니는 현지 친구들도 Warrensburg는 말도 안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 5. UCM 생활 :

1) 기숙사 : Fitzgerald, South yeater, Houts-Hosey, Nickerson, Todd, Elise, Crossing, Foster-Knox 등등 있습니다. 저는 Fitzgerald에 살았지만 친구들 기숙사를 다 다녀왔던 후기로는 Houts-Hosey가 가장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요리해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숙사에 살았지만 개인의 방이 필요하고 요리를 하고 싶다면 Crossing이나 Foster-Knox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어랑 다른 점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기숙사를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2) 식당 :

(1) 기숙사 식당 : Todd hall과 Elise hall 두 개의 기숙사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Todd hall과 더 가까웠기에 이곳에 자주 다녔지만 Elise보다 훨씬 음식도 맛있고 점심마다 Special 메뉴라고 해서 일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Todd hall 많이 이용합니다.

(2) 캠퍼스 식당 : 캠퍼스 안에 있는 식당으로는 Taco bell, Chick-fil-A, Einstein Bors. Bagel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문을 빨리 닫아서 오후 5시가 되면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3) 캠퍼스 밖 식당 : 제가 다녀온 식당으로는 Yummy Donut, Hong Kong Express, Ping's Hibachi, Fiter's Pub, Sabai Thai Cuisine, Wendy's, SPIN! Pizza, Magnolia Market, McDonald's, King's Chef Buffet, Chipotle Mexican Grill, Buffalo Wild Wings, Taco Bell, Country Kitchen Restaurant 등등입니다. Warrensburg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을 가봤는데 기숙사 식당 todd hall이 최고입니다.

3) 동아리 : UCM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를 정말 딱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하고 끝납니다.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 무슨 동아리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저는 펜싱 동아리와 럭비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혼자 럭비 동아리에 연습 가서 재미있게 보냈지만 영어를 못했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연습 한번 나가고 그 뒤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친구들은 친목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Sigma, Kappa, Delta 등등 많은 친목 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로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친목 동아리에서 파티를 열어서 지루한 캠퍼스 속에서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Frat party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파티에서 만났던 현지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4) 이벤트 :

(1) Orientation : 국제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은 개강 전주에 먼저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에는 UCM 신입생들과 다 같이 Kick off를 하는데 그때 왜 국제학생들과 따로 보내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들은 조를 짜서 다같이 그룹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배정받지 못해서 국제 학생들끼리 다 같이 몇 분동안을 앉아있었습니다. 신입생들과 더 함께했었더라면 현지 친구들을 사귀는데 더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 Football 개막전 : 미국에서는 Football이 스포츠 중에서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Football 리그 개막전에는 아침부터 부스들이 열리고 공연도 소규모로 합니다. 대학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Warrensburg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벤트입니다. 이걸 팀이자면 Football이나 스포츠 경기가 끝나는 날에는 사교 파티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스포츠 하는 친구들이나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3) 가을 방학 : 학기 중에 가을 방학이라고 해서 10월에 목금토일을 쉬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의 목표가 여행보다는 캠퍼스를 즐기자 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챙겨가지 않아서 여행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현지 친구의 집에서 보내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혼자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본가에 가서 쉬고 오는 방학이었습니다.
- (4) 할로윈 : 제가 가장 즐겼던 이벤트는 바로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항상 파티가 열리는 목요일날 할로윈 데이이기도 했고 Union이라는 학생 휴식 센터에서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답게 점심부터 코스튬을 하고 지나드립니다. 정말 잊지 못하는 할로윈을 만들고 싶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5) 친구들 : 교환학생의 가장 핵심인 현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골이어서 그런지 아시아인들은 저희 교환학생 외에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신기하게 보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와 주거나 말도 잘 걸어줍니다. 먼저 지나가다가도 웃 예쁘다, 머리색 예쁘다 등등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항상 Hi how are you 라고 물어봐 줍니다. 물론 캠퍼스가 아닌 여행지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학기 초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기가 죽었는지 먼저 다가가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도 참았는데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서 저도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말 걸기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종차별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친구들 은근 Anima를 좋아합니다. 다들 저에게 일본인인 줄 알았다며 Anima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Anima에 관심 없던 한국인이어서 최대한 관심있는 척했습니다.

## 5. 조언 :

저는 UCM이 있는 Warrensburg가 저와 맞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감옥같이 느껴졌고 학기 초에는 정말 안운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Kansas City도 자주 나갈 수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쉽게 느껴지던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 정도로 나와 다른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한 번도 무시 당해본 적 없던 제가 무시를 당한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겪고 극복해나가니까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정말 이 학교에 온 것을 후회했지만 점점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마다 오히려 시골에 있는 학교에 와서 교환학생이라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마운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교환학생 오기 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직접 정보를 얻고 찾아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영어 실력도 현지 친구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늘었고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 이후에 UCM에 오실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히 교환학생을 즐기다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정현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지적재산권 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2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1. 출국 전 준비

파견교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면 담당자가 이메일로 입학허가서와 학생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십니다. 학생 아이디는 파견교에서의 학번이고, @ 전까지의 이메일 주소는 Lionet의 아이디입니다.

비자를 다 처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숙사 신청입니다. 기숙사는 Lionet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ionet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앞서 서술했듯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의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는 학번에서 500 뒤의 숫자 6자리입니다. Lionet에 접속하여 Housing Application and Forms에 들어가면 기숙사 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까지 지불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며칠 몇 시에 원하는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타임슬롯을 Residence Life 담당자가 학생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시간에 맞춰 Housing Application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를 정할 때 MSSU 홈페이지의 Residence Life를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크게 나누면 Quads, Lion Village, East Hall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Quads나 Lion Village에 거주합니다. Quads는 방이 4개가 있고 주방과 거실을 룸메들과 공유하는 기숙사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고 각방(화장실 포함)을 쓸 수 있으며 강의실 건물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건물이 좀 낡았다는 점과 비용이 가장 비싸다는 점을 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장점이 단점보다 크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Lion Village는 가장 최신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깨끗한 기숙사입니다. 각 층마다 공용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Quads와 달리 공용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East Hall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건물이 낡았고 개인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조건에 맞춰 원하는 기숙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에 도착하면 침대 프레임 위에 매트리스만 있기 때문에 침구류를 미리 주문해 놔야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을 학생 계정으로 가입하면 6개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국 직전에 이불과 드라이기처럼 도착하자마자 바로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짐을 많이 끌고 다니기 싫어서 겨울 옷들을 미리 우체국에서 선편으로 보냈습니다. 큰 캐리어를 여러 개 들고 다니기 싫으신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소는 1007 International Ave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여름 옷들과 한식, 화장품, 비상약과 같은 것들을

챙겨서 28인치 캐리어 하나,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끌고 갔습니다. 제가 특히 잘 챙겨왔다고 생각한 물건들은 손톱깎이, 눈썹칼, 쪽집게, 돌돌이, 빨래망, 요리블럭, 욕실화, 고무장갑, 쇠수저 세트, 화장품이었습니다. 자잘한 물건들은 다이소에서 사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미국 화장품보다 한국 화장품이 질이 좋으니 미국에서 두 배 가격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미리 구매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주변에는 샤워기 필터를 사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Quads 기숙사는 샤워기가 호스형이 아니라 벽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Quads에 거주할 예정인 학생분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교수님, 후에 말할 Friendship Family께 드릴 선물을 사가는 게 좋은데, 인사동과 같은 곳에서 전통적인 물품을 사는 걸 추천합니다.

## 2.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MSSU는 미국 중부의 Missouri 주의 Joplin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평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플린 자체에는 백인의 거주 비율이 높지만, 학교 안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케이팝의 영향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플린은 많이 건조하고 전반적으로 따뜻한 기온의 지역입니다. 물론 겨울에는 춥지만 한국의 겨울만큼이나 춥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뜨거운데 건물이 다 낮아 그늘이 없어서 많이 땀습니니다. 꼭 선글라스를 챙겨 다니고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는 에어컨을 정말 세게 틀어서 추운 곳이 많습니니다. 이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바람막이와 같은 겹옷을 하나쯤 들고 다닐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MSSU 주위에는 놀 만한 곳이 많이 없습니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가 없는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안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니다. 걸어갈 만한 곳으로는 영화관과 NorthPark Mall이라는 오래된 백화점이 있습니니다. Northpark Mall 안에는 버블티, Chick fill-a, H&M 등 밥을 먹고 물건을 구매할 만한 가게들이 있습니니다. 그러나 여기서 식재료를 구하기는 어려운데, 이를 위해서는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월마트에 가야 합니다. 저는 보통 Friendship Family께 부탁하거나 친해진 외국인 친구에게 태워다 달라고 하곤 했습니니다.

조플린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니다. 특히 석양이 장관이므로 꼭 여유롭게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 3. 수업 관련 내용

Lionet에서 강의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니다. 정규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생은 ESL(English Second Class)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전공 수업 3개와 미술 수업 하나를 수강했습니니다. ESL 수업보다는 전공 수업이 난이도가 더 있기 때문에 정규 교환학생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4개의 과목을 수강하여 12학점을 신청하였습니니다. 이보다 수업을 더 들으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Lionet에서 Blackboard라는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데, e-campus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과제와 성적, 수업 휴·보강 일정 등이 올라오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녹화 영상이 올라오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Blackboard에 접속할 때마다 Authenticator라는 본인인증 어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들었던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니다.

- 1) **Intro to Criminal Justice:** 형사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전직 경찰관이셨던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셔서 범죄수사에 초점을 맞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PPT와 교재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주로 교수님의 경험담을 들을 때가 많아서 흥미롭게 수강했습니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수업은 경찰견 훈련이었습니다. 자원한 학생들에게 두꺼운 수트를 입히고 경찰견이 그 학생을 제압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업방식은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해서 하루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하루는 대면수업을 진행했

습니다. 매주 온라인 퀴즈 및 과제가 있었지만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퀴즈였습니다.

- 2) **Criminal Law:** 미주리의 형법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강의형 수업이어서 가장 전공다운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법률용어를 영어로 들으니 어려웠지만, 영어로 공부하는 것에 성취감을 느껴 열심히 수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셔서 좋았습니다. 이 과목도 매주 온라인 과제가 있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퀴즈 형식이었습니다.
- 3) **Communication Law:** 언론과 미디어에 관한 법을 주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서 녹화 강의를 올라왔는데, 일주일 안에만 수강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라 쉽게 보고 신청했는데 가장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었는데 레포트를 제출해야 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헌법, 민법,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지재과 학생이라면 쉬울 것입니다.
- 4) **Beginning Landscape Painting:** 유화로 풍경화를 그리는 수업입니다. 네 과목 다 전공을 듣기는 싫어서 교양을 하나 골랐는데 전공보다 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OT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그림을 2~3점 정도 그렸습니다. 재료는 학교에서 다 준비해줍니다. 수업을 미대생들만 들어서 위촉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림 비평 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서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지만 학생들이 제 그림의 사소한 특징 하나까지도 캐치하여 칭찬을 해주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었지만 다 모아두고 보니 뿌듯하고 교환학생의 결과물이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 4. 현지생활 정보

저는 민트모바일이라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e-sim을 구매해서 갔습니다. 현지에 가면 다른 유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개월만 구매해서 갔는데, 나중에 갱신하느라 돈을 더 지불했습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에 가장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냥 6개월을 구매해서 가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가끔 사람이 많거나 지하에 있는 곳을 가면 데이터가 잘 안 터졌지만 이걸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민트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는 신한 쏘트래블 카드, 하나 트래블로그 카드, 그리고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가져갔는데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신한 쏘트래블을 사용하다가 월마트에서 잃어버린 후에는 하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저처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분들은 카드를 여러 개 들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저는 학기 초에 학교에 U.S. Bank에서 직원이 나와서 미국 계좌를 만들라고 추천하길래 만들었는데 잘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지불내역을 정산할 때 특히 유용했고, 미국 사이트들에 계좌를 등록할 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MSSU는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한 곳입니다. 트롤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Greyhound라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Saint Louis에 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비추천하는 버스입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불친절한 것이 기본값이고 험악한 승객들이 많이 탑니다. 제가 탔던 버스의 경우 내부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악취가 심했고, 흑인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백인 남성이 있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백인 남성은 기사님에 의해 저지당해서 버스에서 강제 하차했고 제 옆자리 승객분이 친절하신 분이셔서 겨우 안심하기는 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주위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Walmart, Lion Stop, Northpark Mall, Target 입니다. 월마트가 식자재가 가장 다양해서 여기서 장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이 월마트가 가장 저렴하므로 많은 교환학생들이 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카풀을 해주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참여 여부를 투표하여 학교 차량을 타고 가도 됩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저처럼 친구나 Friendship Family께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Lion Stop은 기숙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있는 주유소의 편의점입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간식거리를 사러 종종 가곤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Northpark Mall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밥 먹고 옷을 사러 놀러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는 주로 H&M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고 무채색의 무난한 옷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Old Navy, Dunham's Sports, Burlington, TJ Max 등이 있습니다. Bath & Body Works에서 바디로션이나 핸드크림을 구매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Black Friday에 할인을 많이 하므로 그때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arget은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가면 있는 월마트와 비슷한 마트입니다. 식자재를 팔기 때문에 월마트에 갈 수 없을 때 갔습니다. 그렇지만 채소가 거의 없고 월마트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월마트에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월마트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식은 아마존이나 Weee!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신라면은 아마존에서 대량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Weee!는 즉석밥을 구매할 때 자주 이용했는데, 즉석밥 브랜드마다 돌아가면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치 같은 경우에는 Weee!보다 월마트가 더 저렴하고 맛있었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Meal Plan을 같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테리아에서 학식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먹긴 했지만, 항상 비슷한 메뉴가 나왔기 때문에(닭가슴살, 감자, 파스타가 주로 나옴) Quads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가장 적은 Meal Plan을 신청하고 요리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리가 귀찮을 때에 Lion's Den이라는 학교 매점에 가서 사먹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라이언덴은 BSC(Billingsly Student Center)라는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안에는 서브웨이와 같은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 햄버거 가게, 카페, 피자헛이 있었고 음료와 과자, 젤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Meal plan을 신청하면 Lion's buck이라고 해서 라이언 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 200달러를 줍니다. 생각보다 이 금액을 다 소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종종 가서 사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위에 놀 만한 곳이 없다 보니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BSC 건물 지하에 있는 체육관에 자주 갔는데, 가서 친구들과 배구와 피클볼을 했습니다.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구를 잘하는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원래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전보다 생활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체육관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던 스포츠를 하든 해서 체력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Young Gymnasium이라는 다른 체육관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SLC(Student Life Center)에서는 탁구와 당구를 칠 수 있고 비디오게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SLC는 카페테리아 건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연식이 느껴지는 건물이지만 아늑해서 좋았습니다. 스테디룸을 자주 빌리곤 했는데, 안에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서 잠깐 시간 때울 때 과자 먹으면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다가 갈 때가 많았습니다. 스테디룸 예약은 MSSU Spiva Library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메일에서 신청 버튼까지 눌러야 완료됩니다.

택배는 SLC에서 픽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Mail box를 신청하면 우편함을 배정받고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함 안에 녹색 티켓이 있으면 그 티켓을 근로학생에게 보여주고 택배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해도 학교에서 정리를 다 한 후에 메일함에 티켓을 넣기 때문에 택배 도착 후 2~3일 후(주말 제외)에 픽업하러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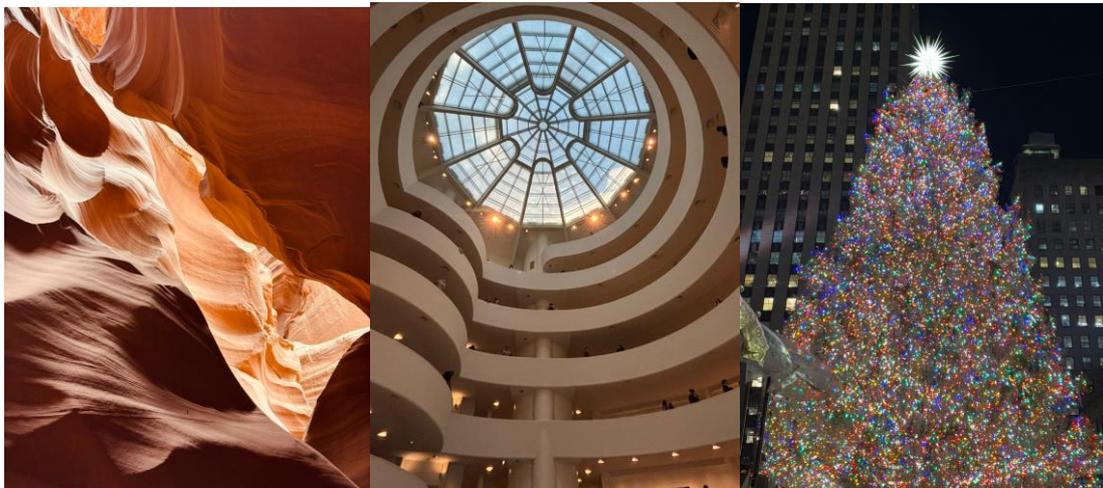
학기 초에 학교에서 각 학생마다 호스트 패밀리 개념의 Friendship Family(이하 프패라고 하겠습니다)를 매칭시켜줍니다. 저는 다른 한국인 학생과 함께 둘이서 한 가족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프패가 집에도 초대해 주시고, 교회나 지역 축제 등 다양한 곳에 많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풍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항상 공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그 외 첨언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겹치는 수업 없이 모두 독강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덕에 영어실력이 조금 더 향상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는 저처럼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언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만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막상 와보니 현지인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교수님 정도...). 물론 수업을 들을 때에는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지만, 친구를 사귄 때에는 많은 영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더라도 결국 친해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해서 친구를 사귀려는 태도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친구에게 모르는 단어나 문장 같은 걸 물어볼 수는 있으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맺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친구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겪어보고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학기 중에 노동절이나 가을방학, **Thanksgiving day**처럼 쉬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노려서 여행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덴버, LA, 라스베가스, 뉴욕에 다녀왔는데 워싱턴 D.C에 안 가본 것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뉴욕에 가실 거면 워싱턴도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여행하면서 미술관에 특히 자주 갔는데,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감상도 많이 했더니 작품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기왕 미국까지 간 거 여러 지역들로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연서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가족복지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2월 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 1. 파견대학 및 기타시설 정보

UCM은 미국 중부 미주리 주에서 Warrensburg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미주리 주는 대지의 대부분이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과 같이 사계절을 가진 지역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Kansas City, St. Louis가 있으며, 각각 Warrensburg에서 차로 1시간 30분,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Warrensburg는 작은 시골 마을의 느낌입니다. UCM이 중심인 캠퍼스타운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UCM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Warrensburg 주민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만큼 학교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식사, 운동, 문화생활 등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는 걸어서 30분 내에 USPS(우체국), Hy-vee Mart(마트), 작은 다운타운, 각종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해 있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면 됩니다.

UCM이 위치한 곳이 시골이라는 배경지식 없이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은 초반에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나 식당들이 오후 3시면 문을 닫고, 여가 시간은 넘치는데 할 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북적거림과 활발함을 기대하는 학생이라면 이곳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UCM으로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그 곳에서의 생활은 분명 여유롭고 평화로울 것이며, 매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마주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생활은 여행에서의 관광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UCM에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미주리 주에서 나고 자란, 미주리 주를 벗어날 생각이 거의 없는 다소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제 학생들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Warrensburg의 학생,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

#### 2. 기숙사

UCM의 기숙사는 Apartment, Residence hall 두 가지로 나뉩니다. Apartment는 말 그대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인데,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마다 주방, 화장실, 침실이 있습니다. 가장 신식이고 좋다는 The crossing에 다들 가고 싶어하지만, 제가 갔던 학기는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늦게 신청한 탓인지, 남는 자리가 없는 탓인지 거의 crossing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기 순번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리가 나지 않아 Residence hall에서 살았습니다.

Residence hall은 전형적인 기숙사입니다. Ellis complex, Fitzgerald, South Yeter, Houtz & Hosey 등 다양한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방 구조는 방 하나에 최대

2명까지 살 수 있으며 옆방과 화장실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기숙사가 같은 방 구조이며 크기, 청결도, 퀄리티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숙사들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의 유무, 공유 주방의 편리도,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Fitzerald**는 모든 기숙사를 통틀어 가장 크고 깨끗한 주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partment** 못지 않게 한식을 많이 요리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위치 또한 **Todd dining hall**, 학생 행사가 주로 열리는 **Union** 건물, 도서관과 가까워 편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또한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작동되었습니다. (**Ellis complex**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기숙사 입주, 퇴소 때 친구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숙사를 선택하신다면 **Fitzerald**를 추천합니다.

또한, **Roommate** 혹은 **Suitemate**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지 말고 당사자는 물론, 기숙사CA(관리자)에게 꼭 얘기하세요. 자신의 상황을 정중하게 전달하면 분명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숙사를 옮길 수 있는 기간도 있으니 불편함을 주는 **Roommate** 혹은 **Suitemate**와 같은 방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 밀 플랜 및 식사

학기 초 밀 플랜을 신청하면 **dining hall**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개수를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로 신청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다 사용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80개를 신청했는데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UCM에는 2개의 **Ellis**, **Todd** 총 2개의 **dining hall**이 있습니다. **Todd**는 점심이, **Ellis**는 저녁이 맛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Todd**는 점심 때 철판에서 즉석으로 요리해주는 파트가 열려 있어 좋지만, 줄이 상당히 길입니다. 저는 기숙사가 **Todd**와 훨씬 가깝기도 했고, **Todd**가 **Ellis**보다 밝고 쾌적한 느낌이라 거의 **Todd**를 이용했습니다. **Everyday**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매일 **dining hall**의 메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 내 식당은 **Union** 건물과 **The crossing** 건물에 있습니다. **Union**에는 **Starbucks**, **Chick-fill-A**(치킨 샌드위치), **Taco bell**(타코, 브리또), **Crush**(타코, 햄버거 등),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스낵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초밥과 롤, 포케, 덮밥과 누들 메뉴를 판매합니다. **The crossing**에는 **Starbucks**와 **Spin pizza**라는 화덕 피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 식당에서는 **Dining dollar**를 사용하면 세금이 붙지 않아 이득입니다. 이것도 밀 플랜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다 사용하면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기 초 국제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이불, 생필품 등 기부 받은 물품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donation** 행사가 열립니다. 이때 관찮은 조리도구를 가져오면 유용합니다. 또한, 화요일마다 **Walmart** 셔틀을 운행하는데 이때 필요한 식재료, 생필품을 사올 수 있습니다. **Walmart**에 라면, 즉석밥, 고추장, 김치 등 한식을 꽤 많이 팝니다. 저는 이렇게 구매한 식재료와 한국에서 받은 조미료들을 활용해서 한식을 많이 해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캠퍼스 외부 식당은 **Yummy's donut palace**입니다. 도넛과 샌드위치, 버블티를 파는 곳인데, 저렴한데 맛있고 직원들이 매우 친절해서 추천합니다.

### 4. 수업

수업은 4과목, 총 12학점을 들었는데, 미국 수업 특성상 과제와 시험이 매우 많아 그리 여유롭진 않았습니니다. 저는 가족복지학과 전공이지만 이곳에서 **Social work** 전공 선택이 불가능하여 평소 관심있던 **International studies**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듣고 싶은 과목들을 골라서 들었습니다.

A. **Intro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입문 수업입니다. 재밌는 수업은 아니지만 수업 내용이 쉬운 편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B. **Photography 1**: 사진 촬영법과 **DSLR** 사용법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기법과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감상하며 **critique**를 진행합니다. 교수님께서 매우 인간적하시고 학생들을 아껴주십니다. 교수님 덕분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 C. **Elementary Spanish:** 스페인어 입문 수업입니다. 스페인어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지만,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스페인어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았습니다.
- D. **Model UN:** 모의유엔 수업이며 학기 말에 있는 **Model UN Conference**를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모의유엔 회의 절차와 진행과정을 영어로 이해해야 하며, 한 국가의 대표단이 되어 컨퍼런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가장 많은 추억과 경험이 남은 수업입니다. 영어로 나의 의견을 말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 5. 후기

미국에서의 교환학생은 매우 만족스럽고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좁은 곳에 한정되어 있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UCM이 아니더라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aliceab1108@naver.com](mailto:aliceab1108@naver.com)으로 메일 주세요!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지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2024-2학기에 저는 프랑스 리옹으로 어학교환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 타지 생활을 경험한 나라였고, 리옹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소중한 기회로 남았습니다.

### 비자 준비

저는 9월 26일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비자 발급, 기숙사 신청, 학교 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를 위해 2024-1학기 동안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비자 관련 정보는 블로그를 참고하며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으며, 저희 전공의 경우 비자 면접에서 불어로 자기소개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를 답해야 했습니다. (타 전공 학생들은 영어로 면접을 봤습니다.)

비자 서류를 작성할 때 해당 학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서류 처리가 3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메일 답장이 느리고 프랑스 공휴일까지 겹쳐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결국 학교 측 실수로 인해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자 면접관께서 프랑스에서는 행정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음 학기에 오는 분들도 미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업과 학습 환경

9월에 온라인 테스트가 있었고, 10월 3일에는 학교에서 구술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 레벨이 배정되었으며, 개강 후 일주일 동안 반 변경 요청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업 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었고, 프랑스어 작문, 조별 활동, 역할극, 노래 배우기, 크레페 만들기 등 실생활과 연계된 흥미로운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은 월·화/목·금으로 나뉘어 두 명의 선생님이 각각 담당했습니다.

수요일은 정규 수업이 아니었지만, 저는 집중 학기를 신청해 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진행되며, 오전반(8:00-12:00)과 오후반(13:00-17:00)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대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반 친구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란,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집트,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각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팀별 활동이 많아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도 많았습니다.

### 기숙사 생활

저는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Students Houses St. Bernard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1인실 기숙사였으며, 한 달에 587유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했고, 기숙사 내에는 헬스장, 탁구장, 세탁기, 공부방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기숙사인 만큼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는 리셉션을 통해서만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에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안전 면에서는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 음식과 생활

프랑스에 도착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쌀이 주식이 아닌 나라라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마트에서 쌀을 사 요리해 먹거나 파스타를 자주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빵집에서 파는 디저트류 빵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유제품과 과일도 저렴한 편이라 종종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매일 직접 요리하며 생활했습니다.

#### 여행과 교통

유럽은 나라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여행하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가 페라쉬역(Perrache)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했으며, 주말에는 기차로 2시간 거리인 파리로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한 어학 연수를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자 준비부터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까지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처음 해외 생활을 경험하는 분들이라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접 부딪혀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환학생을 적극 추천합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가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문헌정보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월	2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학교

다른 보고서에도 있듯이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부속어학원에서 프랑스를 배웁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분이시라면 정말 좋은 곳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거의 프랑스어로 수업하셨고, 수업에서 많이 하는 말들을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수업에 따라가기 좋았어요. 오전반. 오후반 중에 저는 오전 반을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수업을 듣고 리옹 미술관이나 공원, 성당에 가기도 하고, 반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시거나, 낮에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오전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반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란, 미국, 태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외국 친구들을 사귀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또한 처음에 선생님께서 서로 인사하고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해주셔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놀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정말 다양해요. 프랑스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남, 오페라 공연, 버디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로마 박물관 투어 등 다양한 활동 체험을 하고 있으니 마음에 드는 활동이 있으시면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선착순 마감). 저는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주기적으로 디엠을 하기도 했었고,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도 했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신청해 재밌게 즐기고 오세요. 그 외 다양한 액티비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커피 자판기, 간식, 음료 자판기 등이 있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있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학기 중 두 번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유럽 나라를 다녀와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다른 지역들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 2. 기숙사

저는 Saint Laurent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고, 걸어서 30분 정도에 리옹 대성당이 있습니다. 1인실 방에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 각 층마다 공용 화장실 겸 공용 샤워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제 방 옆에 바로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의 주방이 있는데 저는 제일 작은 주방을 써서 붐비는 시간에 주방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습니다. 저처럼 사람 많은 것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일찍 주방 가서 요리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기숙사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10월쯤에는 기숙사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크리스마스에는 시크릿 산타활동 그리고 영화 보는 시간, 음식 공유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주방을 쓰는 친구들이랑 자주 마주치신다면 스몰 토크 하시면서 친해지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기본 식기들 접시, 그릇, 컵,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주방에 서랍장, 공용 냉장고가 있어요. 공용 주방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칸이 나뉘어져 있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지내고 한번 장을 볼 때 많이 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은 편이시라면 이 기숙사에서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비교적 다른 기숙사에 비해 저렴해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이 기숙사에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이 기숙사만 신청 가능했던 상태여서 할 수 없이 이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기숙사 뷰인데요. 창이 크게 있어서 창밖 구경을 자주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살짝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장 보고 기숙사 돌아가는 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C20E 번 버스를 타시면 편하게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리자분들이 매우 친절하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화장실, 주방은 꽤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계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빨래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평일에 빨래를 하시는 게 좋고, 기다리기 싫으시면 아침 일찍 빨래 돌리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래 돌렸습니다.

## 3. 위치, 교통

학교 앞에는 LYON PERRACHE 역이 있는데 여기서 트램, 대중교통 티켓 충전, 버스, 기차, 플릭스 버스 등을 탈 수 있습니다. 저는 플릭스 버스를 자주 탔었는데 기숙사와 가까이 있고, 이 역에 정차하는 버스편도 꽤 많이 있어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TGV MAX에 가입해서 기차를 자주 탔었는데 이곳에서 파리 가르드 리옹역까지 가는 기차 편들도 많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파리 좋아하시고, 숙소비가 부담스럽다면 TGV MAX 가입하셔서 여러 번 당일치기로 파리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트램도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한 편인 것 같습니다.

#### 4. 생활 및 용품

학교 부근에 큰 마트도 있지만 제가 제일 자주 갔었던 마트는 까르푸입니다.

이곳이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마트가 커서 자주 갔던 거 같아요. 트램 T1, T2선을 타고 갈 수 있고, 가까이 버거킹, 자라 등 쇼핑센터들도 있으니깐 구경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키와 카페라고 한국 스타일 카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이불이나, 주방용품 등이 필요하실 텐데 이것들은 이케아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한국 식료품은 ACE GOURMET에서 사실 수 있어요. 일본 식료품이랑 한국 식료품들이 있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Leaf Market Lyon 7에서도 한국 음식 사실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저렴한 거 같긴 합니다. 이곳 근처에 Lidi 대형마트도 있으니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5. 기타

저는 리옹에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옹에서 좋은 추억 경험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감기약이 필요하시다면 약국에서 fervex라는 약 구매해서 드세요. 그리고 학교 앞에 크리스마스 기간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어요. 정말 다양한 상점들이 있으니깐 구경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성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 프랑국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리옹카톨릭대학교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01 월 30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내용

저는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옹 가톨릭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 DELF A2 자격증을 취득하였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 배정을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목표에 적합한 반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수업은 전적으로 프랑스어로 진행되었고 예상보다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읽기와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던 저는 수업을 따라가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감으로 파악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들리는 단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반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며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보며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와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했지만 점차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숙사에서 프랑스인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며 간단한 프랑스어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오기 전,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바캉스 기간에는 기숙사에 머무르는 대신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국,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각 나라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프랑스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 자체도 배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장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거나, 유럽 국가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진 첨부)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황보민정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20402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리옹
보고서 제출일	2024년 2월 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불어 전공이 아니었고, 한번도 불어를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리옹 가톨릭 대학을 선택하여 가게되었습니다. 처음 9월 말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쌀쌀한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얇은 자켓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는 버나드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버나드 기숙사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새로한지 몇년 되지않아 깔끔한 축에 드는 숙소였습니다. 모두 1인실이었으며,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방에 주방이 없어서 방을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었던 같습니다. 주방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요리해먹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방에 우풍이 심해서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장판 꼭 챙겨가세요. 학교 주변에는 마트도 다양해서 항상 하교하면서 장을 봤습니다. 프랑스는 식재료가 저렴했습니다. 특히 고기가 싸서 많이 사 먹었습니다.

수업은 오전수업 오후수업으로 나뉩니다. 이걸 테스트 후 랜덤으로 정해지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오전은 8시부터 12시, 오후는 1시부터 5시입니다. 저는 오전 반이었는데 확실히 하루가 길게 느껴져서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학교 수업은 불어를 아예 모르는 저에게도 조금씩 따라갈만한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출국 전에 불어 공부를 꼭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완전 입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A2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음주가 금지됩니다. 프랑스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을 많이 기대하시겠지만 기숙사 안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기숙사 내에는 헬스장, 탁구장, 빨래방, 공부방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있어서 종교가 있으시다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마다 공부하던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며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서로의 나라의 언어도 조금씩 배워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리옹의 중심지인 벨쿠르 광장은 걸어 20분 정도 걸립니다. 친구들과 자주 가서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공부도 했었습니다. 벨쿠르에 한인마트도 자주 들렀습니다.

바캉스마다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파리를 여러번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루브르, 오르세 등 웬만한 박물관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기차인 TGV를 타야하는데 MAX라는 정기권을 끊으면 무료로 프랑스 내에 있는 도시를 기차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떼제베 맥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 리옹에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황혜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지적재산권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MKC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는 미국의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Heart of America**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미국 한가운데에서 살아보겠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미국 여행하기 편하다는 후기를 보고 나서 캔자스시티에서의 유학 생활을 결정했습니다.

풋볼 경기와 바비큐 그리고 많은 분수가 있기로 유명합니다. 찾아볼 당시 치안은 딱히 나빠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도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기 사건이나 유학생 교통사고에 관한 소문이 들리긴 했습니다. 날씨나 관광 정보는 아래 생활 부분에 정리하겠습니다.

### 2. UMKC의 IRIS 프로그램

#### 2-1. 수업

우선 저는 한국에만 있으면 영원히 영어 공부 시작을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어학연수를 가버리자! 했던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영어 공부 시작이라도 하자는 소박한 목표를 갖고 어학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UMKC 어학원은 **Reading&Vocabulary / Speaking&Listening / Writing&Grammar** 세 가지 수업을 제공하고, 미국 가기 전에 보는 자체 온라인 테스트를 기반으로 4단계의 레벨로 나뉩니다. 이걸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레벨3와 4 그리고 레벨1과 2를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더군요. 저는 레벨3였는데 같은 반의 레벨4인 친구는 어학수업 외에도 정규 수업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인원수는 각 반에 10명 내외로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 대만,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브라질 등 다양했습니다. 한국인도 저를 제외하고 한 명씩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강의자분한테만 수업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성격은 좋으시지만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숙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기 말엔 강의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른 반을 맡으신 분은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과제도 매일 주셨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한 아카데믹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리딩·어휘 수업에선 짧은 글이나 신문을 읽고 중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스피킹·리스닝 수업은 주로 발표 위주로 진행되었고, 짧은 대학 강의 영상을 보며 받아 적는 연습도 했습니다. 라이팅·문법 수업은 영작 위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학 수업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한 학기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어학수업만 듣기는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2-2. 액티비티

IRIS 프로그램 자료에 금요일에는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워킹 투어, 사과농장 체험, 아이스스케이팅장 가기, 실내 게임장 가기 같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UMKC에서 한국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아리랑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하더군요. 가서 한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conversation partner**를 1:1로 연결시켜줍니다. 좋은 파트너 만나서

같이 하이킹도 가보고, 영어도 배우고, 한국 와서도 계속 연락합니다.

### 3. 생활

#### 3-1. 의

캔자스시티는 한국보다 좀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더운 여름이라도 한국은 찜 죽는 느낌이라면 캔자스시티는 타 죽는 느낌입니다. 선크림 필수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한국보다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도 엄청 춥진 않았는데 12월에 눈이 내리면서 확 추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얇은 긴팔, 겨울 냉풍 대비 꺼입기 좋은 옷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쇼핑하시려면 빈티지 마켓 자주 열리니까 여기서 옷 사셔도 좋고, 가장 가까운 컨트리 클럽 플라자 아님 레전드 아울렛이나 오크파크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2. 식

기숙사에 살게 되면 밀플랜을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최소 180끼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외식도 몇 번 하다 보니 종강할쯤에는 남아돌았습니다. 밀플랜으로 제공받은 식사권은 다이닝홀과 스마트마켓(오크홀 1층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플렉스 달러라는 것이 있는데 교내 스타벅스, 베이글집, 로봇카페, 스마트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주변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홀푸드마켓이나 학교 내 팬트리라는 곳에서 식재료를 구해와 기숙사 주방에서 요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CVS가 있는데 거기서 간식 사 먹기 좋습니다. 오버랜드파크쪽에는 한식당, 한국 디저트카페, 한인 마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바비큐 유명하니까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3. 주

교환학생분들은 보통 기숙사에 사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교외 2개, 교내2개 총 4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외 기숙사에 배정되어, 재배정을 요청하니 또 다른 교외 기숙사에 배정을 해주시더군요. 재배정을 요청하니 교내 기숙사인 오크스트릿홀에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룸메이트와 방을 같이 쓰고 스웬메이트와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생활하는 중간에 원하신다면 방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용품이 필요하다면 아마존 프라임 학생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또다른 교내 기숙사인 존슨홀처럼 층마다 음수대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재 대피 훈련 하는데 소리 주의하세요..

#### 3-4. 여가

수업 시간 외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1)교내: UMKC내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정말 자주 주최합니다. CampusGroups라는 앱을 깔면 일정을 볼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해 보세요. 교내에서 축구, 농구, 배구 경기도 자주 열리니 응원 가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체육관도 잘 되어 있어서 저녁에 운동 가볍게 하기 좋았습니다. 헬스, 탁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실내 조깅, 춤연습, 수영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심이 깊고 사우나도 있습니다. 또 매일 다양한 피트니스 수업도 제공하니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교내에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 그중 한 곳에서 독서하거나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기도 했습니다.

(2)교외: 가장 가깝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컨트리 클럽 플라자 많이 갔습니다.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 버블티 먹으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학교 주변에 위치한 벨슨앳킨스 미술관과 미니어처 박물관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버나 무료 버스 타고 웨스트포트, 다운타운, 오버랜드파크가서 시간 보냈습니다. 캔자스시티에 놀이공원이랑 동물원, 수족관도 있습니다.

(3)여행: 저는 캔자스시티 기준 위쪽으로는 시카고, 아래쪽으로는 텍사스 오스틴과 샌안토니오, 동쪽으로는 뉴욕, 서쪽으로는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여행했습니다. 후기대로 정말 어느 쪽으로든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모두 비행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기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초반엔 미국에 대해 잘 몰랐어서 이렇게 여행하면 미국은 다 보고 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새로운 여행지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시야가 정말 많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